

# 리아호나

## 균형 잡힌 삶의 전통, 30쪽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자라는 복음, 22쪽  
음악으로 간증을 키우는 십대들, 52쪽, 54쪽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되새기며, 60쪽



## 우리는 어떻게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가 후기 성도들을 위해 의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우리의 경이로운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킨다.
2.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과 영적인 배움에 우선 순위를 둔다.
3. 신뢰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고, 나아가 영원한 복음 진리에 기초한 표준과 가치에 따라 생활한다.
4. 경전에 담긴 영원한 진리를 배운다.

“의롭고 균형 잡힌 삶의 전통”, 30쪽 참조.





### 집합, 조슈아 윌러스 젠슨

1847년 7월 24일에 있었던 개척자 도착 150 주년을 기념하며 1997년에 현대의 후기 성도 '개척자들'은 네브래스카 주 윈터퀴터스로부터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재현했다. 이 그림은 그와 같은 재현에 바탕을 두며, 1846년 윌리엄 클레이튼이 쓴 찬송가인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는 위에서 언급된 두 부류의 개척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힘껏 앞으로 나가자  
너희 가슴 부푸리니 모든 것 잘되리!  
(찬송가, 16장)



첫 번째 꽃, 애니 헨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요한복음 12:35~36)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선지자의 권고-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거룩한 여성들의 조직

특집 기사

20 두 세기를 지나 연결된 두 개척자  
앨리스 지덴 메릴

22 불과 신앙의 섬, 갈라파고스  
조슈아 제이 퍼키  
이 특별한 섬들에서 교회가 번성하고 있다.

30 의롭고 균형 잡힌 삶의 전통  
엘 톰 페리 장로  
균형 잡힌 삶의 네 가지 열쇠

교회 본부 기사

8 작고 단순한 일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니퍼 로즈 매디

12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제이콥 에프 프랜드슨

14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으로 보내실 때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6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수많은 세대에게 축복이 된 한 명의 용감한 개척자

18 복음 고전: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38 후기 성도의 소리

74 교회 소식

79 가정의 밤 제언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바나나 나무에 얽힌 우화  
린다 제이 레이터이 전해 들은 앤튼 티 쿠마라새미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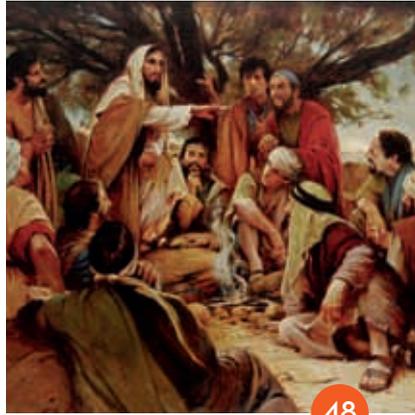
표지  
앞 사진 삽화: 제리 간즈.  
뒤 사진 삽화: photograph © iStockphoto.





42

**42**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졸린 한센  
 저처럼 어린 사람이 이 부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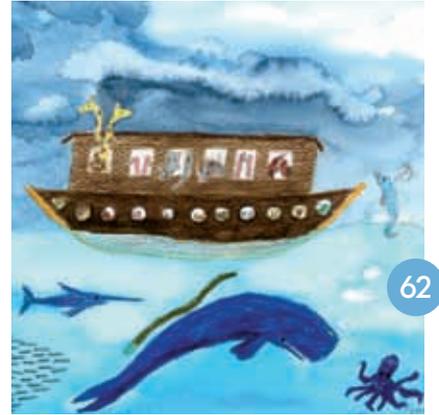
**46** 질의응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48**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2** 노래와 기도  
 애덤 시 올슨  
 달린은 높은 음을 내기 위해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았다

**54** 싱가포르에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  
 미셸 시에, 세리스 옹  
 싱가포르 십대들의 간증과 우정이 뮤지컬을 공연하며 강화되었다

**57** 현대의 개척자  
 주님은 우리에게 별관을 지나 오라고 하지는 않으신다. 그 대신 길 건너 이웃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신다.



62

**59** 특별한 증인: 경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60** 거울 속 모습  
 실라 킨드리드  
 미래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62** 우리들 이야기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비키 에프 마츠모리

**6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다이앤 엘 멩검

**68** 가르칠 사람들을 찾아서  
 선교사들이 가르칠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태양 속의 즐거움

2011년 8월호, 제48권, 제8호  
리아호나 09688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커,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피아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요시히코 가부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라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통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카, 엘리사 맬릴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예드워즈, 매튜 디 플라톤, 라렌 포터 곤트, 래리 힐러,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케이 오데커코, 조슈아 케이 피커, 채드 이 페리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엘 홈스, 잭슨 토마스, 엘리사 켄데노, 폴 벤데버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타스  
선임 디자이너: 시 캄벌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킵클리,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클레타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렛,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킴 핀스타커,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워크  
배부 책임자: 예반 발슨

통 관: 제538호, 제48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중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매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찰만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문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ugust 2011 Vol. 35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 성인



최근 갈라파고스 제도에 교회가 조직되었다.(22쪽 참조) 갈라파고스 제도 교회 회원들의 사진을 더 보려면 웹사이트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에 접속한다.

## 청소년



구약 세미나리 노래를 통가어로 부르는 딜런(52쪽 참조)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웹사이트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에 접속한다.

## 어린이



전 세계에 백만여 명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웹사이트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에서 그 중 몇 명을 만나봅시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밖에 다른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http://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 가족, 4, 14
- 간증, 46, 48
- 개종, 16, 20, 22, 39
- 개혁자, 18, 57
- 경전 공부, 30, 46, 59
- 교회 역사, 8, 16, 18
- 구조, 18, 80
- 균형, 30
- 기도, 38, 52
- 단합, 22
- 봉사, 18, 22, 40, 42
- 부름, 42
- 상호부조회, 7
- 선교 사업, 22, 68
- 성전 사업, 22, 39

- 성찬, 12
- 성품, 30
- 신권 축복, 11
- 신권, 48
- 십일조, 70, 72
- 예수 그리스도, 12, 66
- 유산, 60
- 육신, 64, 73
- 음악, 52, 54
- 재정, 41
- 지식, 30
- 지혜의 말씀, 30, 64, 73
- 치유, 66
- 하나님 아버지, 46
- 회개, 5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선지자의 권고: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 축복 받은 가족 생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다보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속절없이 지나가버리고 때로는 걸치레에 지나지 않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때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서로에게 충실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무와 존중, 더 나아가 소속감으로 함께 뭉쳐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축복 받은 가족 생활이라는 유대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배웁니다.”<sup>1</sup>

## 사랑을 나누십시오

“자녀들을 안아 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해야 할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은 떠나버리고 자녀들은 성장하며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연히 늘 곁에 있을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만일 ..... 했더라면’ ‘단지 그랬더라면’과 같은 후회만 남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삶을 음미하고, 그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친구와 가족에게 사랑을 줍시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내일이 존재하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미루지 맙시다.”<sup>2</sup>

## 사랑을 보이십시오

“형제 여러분, 아내를 고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아내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친절할 말들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웃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부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은 알 것입니다만, 아이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녀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그 점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매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살피고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다룰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일에는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sup>3</sup>

##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신앙과 간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선한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해 주고 계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십시오.”<sup>4</sup>

##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에는 거의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사람들은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친절할 말을 하거나 애정을

보인 것을 후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친절할 말과 애정 표현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서 사라지게 될 때,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sup>5</sup>

### 하늘과 더욱 가까워지며

“우리 가족과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과 동료에 대한 사랑,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과 하늘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가족들이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하는 성역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sup>6</sup>

### 가족을 위한 기도

“세상에서 가정이 공격을 받고, 예로부터 기록하게 여겨지던 많은 것들이 업신여김을 받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께 비옵나니 저희가 처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화와 사랑,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sup>7</sup> ■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무** 언가를 배울 수 있는 활동 환경이 조성되면 “교사는 특정 질문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반원들에게 얼마간 시간을 주어 자유롭게 생각이나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는 생각이나 권고가 있는지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한다. 그 후에 가정에서 사랑이 깊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그렇게 나눈 의견을 돌아오는 가정의 밤 시간에 되짚어보도록 권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주

1. “A Sanctuary from the World,”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2008년 2월 9일, 29쪽.
2. “Joy in the Journey”(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May 2, 2008), <http://ce.byu.edu/cw/womensconference/archive/transcripts.cfm>
3. “풍족하게 축복받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12쪽.
4.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3쪽.
5.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6쪽.
6. “A Sanctuary from the World,” 30~31쪽.
7. 2010년 5월 23일 애리조나 길라 밸리 성전 헌납 기도, “The Gila Valley Arizona Temple: ‘Wilt Thou Hallow This House,’” *Church News*, 2010년 5월 29일, 5쪽.



### 우리를 구해주신 어머니

패트리샤 옥시어

**여**섯 살 때 여동생과 함께 언니가 선수로 뛰는 농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다. 아버지가 자리를 뜨신 후에 여동생과 나는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비를 맞으며 아버지를 뒤쫓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려고 체육관으로 돌아왔는데 경기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여동생과 함께 현관에서 비를 피하면서 누군가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 우리 가족이 몰던 빨간 화물차 문이 당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나의 가장 생생한 어린 시절 추억 중 하나가 되었다. 어머니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제3니파이 10:4) 우리를 팔로 감싸 안으셨다. 어머니는 우리를 구해 주셨고, 그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그분의 삶을 통해 구주께

*어머니가 우리를 팔로 감싸 안은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이 찾아왔다.*

향하는 길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그분은 어머니에게 “[어머니께] 있는 힘보다 더 큰”(“Lord, I Would Follow Thee”, *영어 찬송가*, 220장) 힘을 주셨다.

### 어린이

####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몬**스 회장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마다 옆에 있는 빈칸에 적어 넣으세요. 첫 번째 일을 찾으면 1번에 적힌 집 부분을 그려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다섯 가지 찾으면 집 전체를 그려서 그 안에 여러분의 가족을 그려 넣으세요.

- 1. 벽 \_\_\_\_\_
- 2. 지붕 \_\_\_\_\_
- 3. 문 \_\_\_\_\_
- 4. 창문 \_\_\_\_\_
- 5. 가족 \_\_\_\_\_



신앙 · 가족 · 구제

# 거룩한 여성들의 조직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제** 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셨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대 사도인 바울은 거룩한 여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여성이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받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여성이라면 우리의 목표 역시 고결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중대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무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홀로 떨어져 있거나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자매는 아무도 없으며, 이 땅 위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sup>1</sup>

자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고립되거나 활동 영역이 협소하지도 않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활동하는 이 은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고 유덕하며 선택된”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sup>2</sup>

이 조직은 우리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봉사하며 가르칠 기회를 주어 우리가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봉사할 때 우리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됩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며 더 나아가 소속감과 정체성, 자존감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곧 복음 계획이 추구하는 온전한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는 성전에서 축복을 받고, 성약을 지키며, 시온의 대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또한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아울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돕게 합니다.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성스럽습니다. 성스러운 일을 할 때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자라납니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 경전에서

출애굽기 19:5; 시편 24:3~4; 데살로니가전서 4:7; 디도서 2:3~4; 교리와 성약 38:24; 46:33; 82:14; 87:8; 모세서 7:18

##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내가 방문하는 자매들이 성품을 개발하고 '자신을 고양시킬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
2. '거룩하고 유덕하며 선택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http://www.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 주

1. Eliza R. Snow, "An Address," *Woman's Exponent*, Sept. 15, 1873, 62쪽.
2.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570.
3.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605, 606.
4. Lucy Mack Smith, in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842~Mar. 1844*, entry for Mar. 24, 1842, Church History Library, 18~19쪽.

##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선지자 조셉은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에 말씀하면서 거룩함을 강조했다며 자매들이 정결하고 성스러워짐으로써 이 세상에 분명하고도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온유와 사랑, 정결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되게 해 줄 것입니다. …… 이 조직은 …… 여왕들을 호령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지상에 있는 왕과 여왕들이 시온으로 나아와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존경 받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맞는 생활을 한다면 천사들이 기꺼이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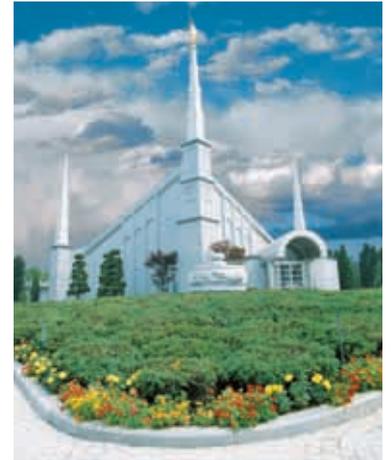
자매들은 이웃에게 봉사하고 구조하는 일에 참여할 때 개인적으로 성결해진다. 선지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훌륭한 상호부조회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보살피고 위로하며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sup>4</sup>



#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앨마서 37:6)

## 세계 교회 역사 탐방



왼쪽: 한국을 방문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 장로(가운데)와 함께한 김호직 형제(오른쪽) 위: 1985년에 헌납된 한국 서울 성전.

## 한국

한국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초였다. 그러나 초기 한국인 개종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호직 형제가 침례를 받았던 곳은 미국이었다. 김 형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던 1951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1952년 8월 3일에는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중 두 명은 김 형제의 자녀들이었다. 김호직 형제는 나중에 한국 정부 요직에서 일했으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1962년에 한국 선교부가 설립되었으며 1967년에 우리말로 된 몰몬경이 인쇄되었다. 1973년 3월 8일에는 한국에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는데, 그곳은 아시아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스테이크이기도 하다. 1985년에는 아시아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인 한국 서울 성전이 헌납되었다.

200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한 부를 전달했다.

한국의 교회	
회원	81,251
선교부	3
스테이크	17
와드 및 지부	142
성전	1



원본 위: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허가를 받은 사진 게재. 한국 서울 성전 사진: 월리엄 토티드 홀드먼. 지도 사진 © STOCK

# 퀴즈: 선지자의 아내

에머 스미스부터 프랜시스 몬슨에 이르기까지 교회 회장들의 아내들은 충실한 내조자로서 남편 곁을 굳게 지켰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선지자의 충실한 아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사도와 선지자,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그들 곁에 영적 수준이 대등한 여성을 세워주십니다.”<sup>1</sup> 퀴즈를 풀어보면서 후기의 선지자 여덟 명의 강인한 아내들에 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정답은 다음 쪽에.

1. 이 여성은 1834년에 침례를 받았으며, 후에 혼자 1,600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미국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후기 성도들과 합류했다. 교회가 참되지 않다면 돌아오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지만 그녀는 여생을 후기 성도들과 함께했다.<sup>2</sup>

2. 십대 시절, 장래에 남편이 될 형제는 이 청년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했다. 그래서 부유한 이웃 소년들처럼 멋진 정원에서 파티를 열기 위해 집안 정원을 고쳤다.<sup>3</sup>

3.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굉장히 즐겨서 때때로 잠을 자거나 침대를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오르간 연습을 해야 하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다.<sup>4</sup>

4. 여덟 살 때 이 어린 소녀는 숲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마침 사냥을 하려고 숲을 지나던 아버지가 우연히 딸의 기도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신앙이 더 강해졌다.<sup>5</sup>

5. 미래에 남편이 된 형제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는 날,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 불에 입맞춤을 해 주었다. 자신에게서도 입맞춤을 기대하며 돌아보는 남자친구에게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난 가서 외투를 가져올게요.”<sup>6</sup>

6. 이 여성은 유타 대학교와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지내며 가사일을 익혔다. 그녀는 문학과 연극, 미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탁월한 음악가가 되었다.<sup>7</sup>

7. 대학 시절, 이 젊은 여성은 세익스피어 희극 십이야에서 주연인 바이올라 역을 연기했으며, 주니어 무도 위원회 위원장, 여학생 운동 클럽 회장, 학생회 부회장이었다.<sup>8</sup>

8. 이 여성은 초등학교에서 완벽한 발성과 몸짓으로 감동적인 낭독을 선보였다. 그녀의 남편은 후에 그녀가 한 낭독에 관해 이렇게 소개했다. “그때 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으며,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sup>9</sup>

## 주

1.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1966-1973), 3:302.
2. “Phoebe W. Carter Woodruff,” in Augusta Joyce Crocheron, *Representative Women of Deseret*(1884), mormonwomenhistory.org/final/biographies/pww.html 참조.
3. Francis M. Gibbons, *George Albert Smith: Kind and Caring Christian, Prophet of God*(1990), 9-10쪽 참조.
4. Lavina Fielding, “Camilla Kimball: Lady of Constant Learning,” *Ensign*, Oct. 1975, 61쪽 참조.
5. 마크 스테커, “충실한 소녀 에머,” *리아호나*, 2010년 9월호, 58쪽 참조.
6. 토마스 에스 몬슨, “풍족하게 축복받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11쪽 참조.
7. Francis M. Gibbons,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1986), 56-57쪽 참조.
8.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1987), 77쪽 참조.
9.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성도의 빛*, June 1995, 17쪽 참조.



에머 헤일 스미스



플로라 아뮤센 벤슨



마조리 페이 힝클리



피비 더블유 카터 우드러프



루시 우드러프 스미스



프랜시스 존슨 몬슨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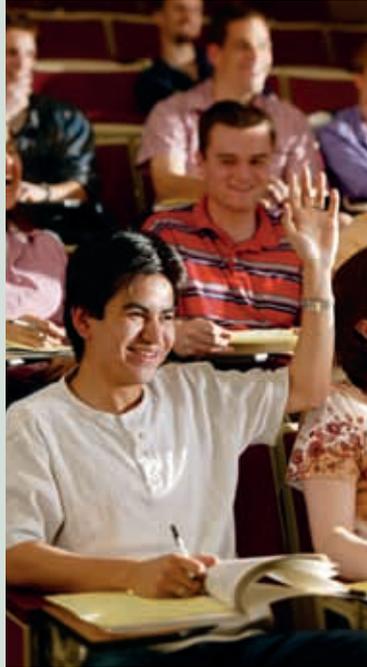


에머 레이 맥케이

## 교육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서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을 늘 장려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 우리 각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늘 배움이 필요합니다. 한 차례나 일정 기간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Education for Real Life”, *Ensign*, Oct. 2002, 17.



## 평생 학습에 대한 제언

- 좋은 책을 읽는다.
- 관심이 있는 취미를 배운다.
- 건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한다.
- 일요일 공과에서 다루기로 계획된 연차 대회 말씀이나 복음 원리 단원을 공부한다.
- 박물관과 사적지를 방문한다.
- 주변 세계를 관찰해 본다. 인근 지역을 돌아다녀보거나 별을 관찰하고, 거주 지역 내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살펴본다.
- 가족 역사 사업을 한다.
- 새로운 기술 또는 운동을 배운다.
-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본다.

이 주제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신앙에 충실함(2004), “교육”, 31~32쪽을 참조한다.

## 퀴즈 정답

### 선지자의 아내

1. 피비 더블유 카터 우드럽, 윌포드 우드럽과 결혼
2. 루시 우드럽 스미스, 조지 앨버트 스미스와 결혼
3.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스펜서 더블유 김볼과 결혼
4. 에머 헤일 스미스, 조셉 스미스와 결혼
5. 프랜시스 존슨 몬슨, 토마스 에스 몬슨과 결혼
6. 에머 레이 맥케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와 결혼
7. 플로라 아뮤센 벤슨, 에즈라 태프트 벤슨과 결혼
8. 마조리 페이 힝클리, 고든 비 힝클리와 결혼

##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리** 아호나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성인들이 작성한 실화를 모집합니다.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름이나 대화 내용, 사소한 사항들을 더하거나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어린이들의 일화이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복음을 통해 실제로 유혹이나 갈등을 이겨낸 모습이 담긴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이야기에는 주인공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한 경험이나 자녀의 경험, 또는 주변 어린이의 삶 속에서 목격한 일화들은 훌륭한 이야기 주제이자 소재가 됩니다.

신앙이나 침례, 정직, 용서, 간증, 가정의 밤, 선지자를 따르는 일, 이웃 돕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성신, 그밖에 ‘나의 복음 표준’ 원리들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를 표기해 주십시오. 원고는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tories for Children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니퍼 로즈 매디  
교회 잡지



**차**를 몰고 서서히 언덕을 오르는 동안 눈이 펄펄 쏟아졌다. 폭대기까지만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굽어진 길을 무사히 돌아 나오는데, 내리막길에서 제어력을 잃고 내 쪽으로 돌진해 오는 차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비명을 지르기 무섭게 차는 충돌했고, 나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겨우 눈을 떴다. 산산조각이 난 옆 창문으로 불어 들어오는 눈발이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등을 기억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던 나는 어깨와 가슴이 찌시는 통증을 느끼며 흐느껴 울었다. 나는 이 부상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손을 붙드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내가 눈을 뜨자 검은 외투와 모자를 쓴 남자가 보였다. 그분은 사고로 엉망이 된 내 차 곁에서 있었다. 집에 있던 아내가 사고를 목격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그분은 내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남성이 후기 성도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말만 할 수 있었다.

그분은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깨진 창 사이로 손을 뻗어 내 머리 위에 올렸다.

어떤 축복을 해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한 것만은 기억난다. 나는 평안과 위안을 느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몇 시간 후, 나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여러 곳에 흠이 나고 멍이 들었지만 심각한 부상 없이 병원을 나왔다.

나는 그날 아침에 안전하게 여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깨달았다. 내 기도는 기꺼이 행하려는 신권 소유자를 통해 응답되었다. 그분은 사고 현장에서 몇 걸음 안 되는 곳에서 살았다. 그 사고는

## 자신의 신앙에 따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만이 병자나 고통을 받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보통 두 명 이상의 신권 소유자가 병자를 축복하지만, 필요한 경우 한 사람이 기름 부음과 인봉 둘 다를 혼자 할 수도 있다. ……

형제들은 병자나 또는 근심이 매우 큰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 병자 축복을 해야 한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0.6.1.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내가 길에서 그분과 마주치더라도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 인사를 건넨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축복이 필요했을 때 합당한 상태로 기꺼이 신권 축복을 해주신 그 낯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제이콥 에프 프랜즈슨

“구원이 오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모사이야서 5:8)

## 주님을 우선시하십시오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구주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약속한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하나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9월호, 5쪽)

**선** 교사로 나온 지 몇 주가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오고 향수병도 약간 생겼다. 선교사가 된 것은 좋았지만 선교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친숙했던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앉아 개인 공부를 하다가 선교사 명찰을 뒤집고 또 뒤집으며 내가 정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생각했다. 그냥 누군가가 친근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명찰을 보면서 그곳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내 성과 교회 이름, 그리고 구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내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선교사로서 나 자신을 대표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대표해서 봉사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주와 그분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였다. 나는 명찰을 심장 바로 위에 있는 셔츠 주머니에 달았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을 위한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겠다고 구주께 약속했다.

그날 아침 이후로는 성이 아닌 내 이름만이 불려지는 것이 더 이상 그림지 않았다. 그때부터 매일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봉사했다. 낙심할 때마다 나는 명찰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나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받들고 더욱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하자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과 동반자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고, 간증이 강해졌으며, 선교 사업은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나는 자신을 잊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귀환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에게서는 구주의 이름을 받들 기회들이 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교회 회원으로서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다짐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88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

1.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맺은 성약, 즉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기꺼이 새롭게 할 수 있다.
2.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교리와 성약 18:21 참조)
3.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위해 일함으로써 그분에게 봉사할 수 있다.(히브리서 6:10 참조)

가정의 밤이나 간증 모임, 또는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해 본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 구주를 대표하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다. “나는 ……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 ……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라. 이는 그가 어떤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우는지 알 것임이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울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5:8~9) 우리 각자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지상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해 더 많은 목적을 깨닫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 ■

구주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분께서는 빵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누가복음 22:19~20)

개인적으로 구주의 성역이나 사명과 관련된 경험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500자 이내(영어 기준)로 적어서 We Talk of Christ라는 제목을 붙여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으로  
보내실 때

##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 역시 그 계획에 따른 일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상에 있었던 첫 번째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셨으며,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명하셨습니다.(창세기 1:28 참조) 하나님은 영의 자녀들이 육신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부모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는 태어나는 자녀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기쁘게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가장 사랑받고 보호되려면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가족은 같이 일하면서 자제하는 마음과 희생, 성실성, 일의 가치를 배웁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4:14~15 참조)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순종하고, 아울러 가족의 이름을 영예롭게 할 만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북돋아주고 칭찬해

줄 때, 신뢰와 사랑은 깊어집니다. 훌륭한 가족은 희망과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배우며 일하도록 돕습니다. 즐겁고도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 207~211쪽;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1~44쪽을 참조한다.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매주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교리와 성약 59:9~10  
참조)



행복하고 훌륭한 가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한다.(제3니파이  
18:21 참조)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가족이 함께 정기적으로  
경전을 공부한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관대해지는  
법을 배운다.(모로나이서  
7:45~48 참조)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함께  
일하며, 소풍을 가고, 서로  
상의하며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기회를 만든다.

사진: 신화: 데이비드 스톤커, 스티브 반더스, 크레이그 타이먼, 존 루크, 에투 리어, 로버트 케이지, 프랭크 헬름리처

## 수많은 세대에게 축복이 된

교회 초기 시절부터 회원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와 조롱을 받았다. 사라 엘비라 에릭슨이라는 청년도 그와 같은 핍박을 경험했다. 1895년에 노르웨이 드람멘에서 태어난 사라는 간증을 얻은 후로는 복음에 헌신했다. 그 헌신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보인 용기와 신앙 덕분에 오늘날 그 후손들은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사라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장애물과 마주칠 수 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대한 간증이 필요하다. 사라는 그랬듯이 우리가 선택한 신앙을 굳세게 지킨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 사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한 명의 용감한 개척자



사진 제공: 제니 버일런

# 엔

다섯 살 때였다. 어느 일요일 저녁,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시더니 몰몬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하셨다. 정말 의외였지만 나는 호기심에 아버지를 따라갔다. 교회에 들어서자 합창단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음악을 통해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한 선교사가 일어서서 신화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선교사는 나중에 우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로 1년 동안은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선교사에게서 영어를 배우려고 교회를 다시 찾았다. 우리는 매번 영어 수업을 마치고 종교 토론을 했다. 선교사들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고 몰몬경이 나온 이야기와 다른 여러 가지 복음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낯선 이야기였지만 왠지 익숙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깨달음을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음을 감지하셨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노여워하시며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교회에 참석했다. 아버지는 자주 남동생을 보내서 교회 모임 중간에 나를 집으로 데려오게 하셨다.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다. 나는 침례받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탁자를 내리치며 이렇게 소리치셨다. “절대 안 돼!”

그 무렵에 부모님은 다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나와 이야기해 보라고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복음에 대한 내 간증은 확고했다. 아버지는 나를 가족의 수치라고 하시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나는 일주일 정도를 상호부조회 자매님 댁에서 머물렀다. 그 동안 아버지는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고 허락하셨다.

몇 개월을 지내면서 아버지는 어떤 것도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결국 침례를 허락하셨다. 무척이나 좋아하는 내 모습에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고, 침례식이 열릴 오슬로까지 함께 가시겠다고도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서 이 복음이 참되다고 믿으신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집에서 겪는 어려움이 끝이 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늘 늦게까지 책을 읽으시는 분이기에 나는 아버지 침대 곁 탁자에 교회 책들을 놓아두기도 했고 자주 선교사들을 집에 초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게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기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복음이 참됨을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곧이어 “같이 기도를 해보자.”라고 하셨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누가 먼저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몰몬경과 소책자를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교회에 몇 차례 가셨지만 그에 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믿음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날마다 여러 복음 원리에 관해 토론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오슬로에 가실 일이 있다면서 나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장로님 한 분과 마주쳤다. 나는 장로님에게 어디에 가시는 길이냐고 인사를 건넸다.

그때 나는 그 선교사에게서 이런 대답을 들었다. “아직 모르셨어요? 전 자매님 아버지께 침례를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눈물과 웃음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한 달 뒤에는 어머니와 막내 남동생도 침례를 받았고 얼마 뒤에는 오빠와 세 남동생과 언니, 형부도 교회에 들어왔다.

■ 현재 교회에서 충실한 회원으로 생활하는 사라 앨버라 에릭슨의 자손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 그녀의 개인 역사에서 발췌한 이 이야기는 그녀의 자녀인 로즈 앤더슨, 베티 팔리, 악셀 태너, 재닛 바일런이 보내주었다.

# 구조의 손길을 뵈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910~2008)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1995년 3월 12일에 제15대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고 재임 기간 동안 소규모 성전 건립을 추진하여 79개에 달하는 새로운 성전을 발표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60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후기 성도들을 방문한 것으로도 기억되고 있다. 다음 기사는 힝클리 회장이 1996년 10월 6일에 전한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했다. 말씀 전문을 보려면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 접속한다.

**우** 리 모두는 과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

1856년 10월 연차 대회로 돌아가 봅시다. 그 대회 토요일에 프랭클린 디 리차즈와 몇몇 일행이 [솔트레이크 벨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윈터 쿼터스에서 힘센 마소가 끄는 가벼운 마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그곳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리차즈 형제는 도착 즉시 영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스코츠블러프에서 이 계곡에 이르는 먼 길 사이에 수백 명이나 되는 남녀와 어린이들이 드문드문 흩어져서 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을 도우라는 임무를 받은 마차 두 대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마차들은 노스 플레이트 강을 건너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로키산맥 분수계\*로 이르는 오르막 길이 나왔습니다. 그 너머에도 가야 할 머나먼 길이 있었습니다. ....

그 다음날 아침, [영 회장님은 템플 스퀘어]에 있는 태버내클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많은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와 함께 지금 평원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곳에서 약 1,1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 ....”

그것은 제 신념이자 제가 받은 성신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감독님들을 소집하겠습니다. 내일이나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좋은 노새 60마리와 마차 열두 대 또는 열다섯 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황소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말과 노새가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좋은 말과 노새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또한 마차를 모는 사람 외에도 노새와 말을 잘 부릴 줄 아는 사람 40명과 밀가루 12톤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원리들을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종교와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서 가서 평원에 있는 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날 오후 여성들은 많은 음식과 침구와 의복을 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말에 편자를 박고 마차를 수리해 짐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날일 10월 7일 화요일 오전, 노새 열여섯 마리를 이끄는 구조대가 동쪽을 향해



초기  
성도들의  
구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전합니다.

출발했습니다. 10월 말경까지 구조를 하고자 떠난 무리는 259개 조에 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단에서 훌륭한 설교들이 수없이 전해졌으나 그 상황에서 영 회장님이 전하신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는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 구조 이야기는 거듭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회원들 중에도 고통, 역경, 외로움, 두려움으로 절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굶주렸다면 손을 내밀어 돕고, 기운을 북돋아 주고 먹여야 하며, 진리와 의에 목마른 이가 있다면 그 영을 양육할 위대하고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정치 없이 방황하고 마약, 폭력배, 부도덕과 이에 수반되는 온갖 문제에 빠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할 말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바라는, 남편을 잃은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이 뜨거웠으나 차갑게 식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우정으로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많은 이가 주님의 식탁으로 다시 돌아와 성찬을 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 우리 각자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절망스러울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의

정신으로 북돋우고 교회 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강한 손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위로하며 지지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훌륭한 대업에서 함께 일하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인류의 구속주이자 전능하신 주님이신 그분의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Brigham Young, quoted in LeRoy R. Hafen and Ann W. Hafen, *Handcarts to Zion*(1960), 120~121

\*분수계: 일반적으로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며, 산맥의 봉우리를 이은 선에 상당한다. 대규모의 분수계는 빙물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기후구의 경계를 이룬다.(울긴이)

# 두 세기를 지나 연결된 두 개척자

앨리슨 지젠 메릴

**에**베네서님,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지요.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1830년 11월 17일에 스코틀랜드 퍼트셔 덤블레인에서 앤드류 브라이스와 재닛 애덤스 브라이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에베네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로부터 143년이 지난 후 저는 타이완 화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지젠 홍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열 살 소년 시절에 벌써 조선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당신은 수습공이 되었고 그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숙련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네 살 때부터 구구단과 중국어 발음기호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해냈습니다.

당신은 1848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가족들, 친구들은 당신의 그런 열의에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교회를 비난하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했지요. 아버지는 심지어 당신이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옷을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힘써 나아갔습니다.

1986년 12월 4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인 두 미국인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은 하셨지만 복음에는 관심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가정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표지 안쪽에 가까운 교회



주소를 적은 물문경을 한 권 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린 언제나 형제님의 친구입니다. 저희가 형제님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주소지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교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의 메시지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냉혹해졌고 삶은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소적인 심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모님의 끔찍한 대우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저는 겁에 질려 집을 뛰쳐나와 눈에 몸을 숨겼습니다. 외롭고 우울했으며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도망을 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선교사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일은 제일 먼저 친구들을 찾아갈 거야.’ 하고 다짐하자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자전거에 올라탄 저는 중심가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을 방문했던 그 장로님들은 이미 귀환했기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막 포기하려던 찰나에 많이 보던 김정색 이름표를 외투에 단 두 친절한 여성 분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에베네서님, 당신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48년 4월에 침례를 받아 가족 중에서 유일한 개종자가 되셨지요.

저도 자매 선교사들을 만나고 한 달이 지난 1988년 11월에 침례를 받아 우리 가족 중에서 유일한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쿵쾅거리며 집안으로 들어와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물문경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하얀색 종이 조각이 공중에서 휘날리며 바닥으로 서서히 내려앉았고, 저의 눈물도 방울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 한 스코틀랜드 소년과 타이완 소녀는 150여 년을 넘어 신앙으로 연결되었다.

정말 깨어나지 못할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부녀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고향으로 향하는 선달그믐 날 밤에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베네서님,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스코틀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후기 성도들과 합류하고 평원을 건너 유타로 가기로 결정했죠. 당신의 아버지는 격노하여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젊은 당신의 결의는 굳건했습니다. 당신이 배에 올라탄 날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네서님, 열일곱 살이었던 당신에게 이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잘 해냈습니다. 목수일, 물방아 목수, 배를 만드는 기술은 곧바로 쓰였습니다. 당신은

에베네서 브라이스는 파인밸리 집회소(아래) 짓는 일을 도왔으며, 이 집회소는 1868년에 완공되었다. 에베네서는 또한 남부 유타에서 그의 이름을 따라 현재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우측)이라 불리는 협곡을 발견했다.



유타 파인밸리에서 집회소를 지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때까지 한 번도 집회소를 지어본 적이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그 건물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후기 성도 집회소입니다.

그 후 당신은 웅장한 원형 분지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그 분지는 당신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는 1994년 6월 4일에 전임 선교사가 되어 타이완 타이중 선교부로 갔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집에 왔던 장로님들처럼 저도 외투에 검정색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저는 겸손했고,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유타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과 저는 남편의 계보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에베네서님, 당신은 저를 모르시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발은 결코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당신의 손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당신의 마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니다. 당신은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당신이 보여준 충실한 모범은 여전히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에베네서님, 고맙습니니다. 정말 고맙습니니다! ■





# 불과 신앙의 섬, 갈라파고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울** 통불통한 화산암 지대 너머로 솟은 커다란 바위기둥은 차가운 바닷물이 일으키는 물보라를 요새처럼 막아준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삐죽삐죽한 끝머리는 사실 공룡 떼처럼 모여들어 아침 햇볕을 기다리는 바다 이구아나들의 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침에 뜨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활력을 불어 넣는다. 대열을 떠난 몇몇 이구아나는 바위 아래 여기저기에서 칼처럼 날카롭고 여인의 손가락만큼이나 기다란 큰 발톱으로 바위를 꼭 붙잡은 채 홀로 기다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구아나는 떼를 지어서 온기와 안전을 유지한다. 가족 같은 이구아나의 몸은 추위와 어둠 앞에서 본능적으로 서로를 의지한다. 모두 다 함께 겪는 어려운 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해결한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불에서 탄생한 곳이다. 그렇기에 생명은 더더욱 귀중한 의미가 있다. 과학과 신앙이 혼합된 땅인 이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인류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이곳 교회 회원들은 바다 이구아나처럼 신앙과 봉사, 희생을 통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서서히 나아가며 그들의 성약을 꼭 붙잡을 때 힘이 생긴다는 점을 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화산암과 피리새류, 거북이, 그리고 관광객이 많다. 그러나 또한 그곳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곳은 신앙의 중심지이며 봉사와 희생으로 놀라운 단합과 강한 신념이 생기는 곳이다.

## 집합이 시작된 경위

에콰도르 키토에 머물던 여행 가이드이자 동식물학자인 안드레 데겔은 어느 이른 일요일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후기 성도 집회소 옆을 지났다. 때는 1997년이었는데, 안드레 데겔은 교회 회원이었으나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사를 온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저활동 회원이었다. 안드레는 교회에서 느끼던 위안을 떠올리며 에콰도르에 있는 동안 이따금 일부러 교회 옆으로 걸어 다녔다. 그러나 대체로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단지 건물 근처에 있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만으로도 “집에라도 온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고 한다.



왼쪽: 갈라파고스에 있는 산타크루스 섬(왼쪽)과 발트라(오른쪽) 섬. 위: 바다 이구아나가 산타크루스 토르투가베이에 있는 바위에 착 달라붙어 있다.



위: 산타크루스, 푸에르토아요라 만과 시내. 아래, 왼쪽부터: 산드라 데젤과 안드레 데젤, 그들의 조카딸 클라우디네; 마리아나 베세라; 팔라시오스 가족; 오스왈도 빌론과 로사리오 빌론.

그날, 성찬식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다. 안드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운명을 바꿔놓을 결정이 되었다.

선교사들과 회원들은 모임이 끝난 후 안드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드레는 그때 즐겁게 나누는 대화를 기억한다. 특히 회원들이, 자신이 갈라파고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놀라며 흥분했는지를 떠올린다.

당시에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교회가 없었다. 사실, 에콰도르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은 그곳에 회원들이 산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선교사들은 지체 없이 안드레를 에콰도르 키토 선교부 회장에게 소개하고 안드레의 연락처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드레는 산타크루스 섬 푸에르토아요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선교부에서는 곧바로 안드레에게 학습 자료를 포함하여 두 상자나 되는 교회 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교부 회장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회원들 명단을 입수한 것이었다. 안드레는 그 명단을 사용하여 성도를 모으는 일을 도왔다.

안드레는 그 명단을 훑어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 명단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교회 회원인 줄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때맞춰 산타크루스에 있는 회원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갈라파고스 제도로 온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찾고 있었다.

### 함께 모이라는 부름

마리아나 베세라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힘든 삶을 살았다. 마리아나가 1990년에 갈라파고스 제도로 왔을 때는 교회 회원이 된 지 겨우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마리아나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왔을 때는 교회가 없었고 제 아들과 저뿐이었어요.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하면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아는 몇몇 회원들은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팔라시오스와 지네스 팔라시오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눴다. 데이비드는 십대 시절에 교회에 들어왔고, 지네스는 1993년에 침례를 받았다. 이 부부가 갈라파고스로 오기 바로 일 년 전이었다.

지네스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이곳으로 왔을 때는 회원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유일한 회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회 없이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러던 1997년 어느 날 안드레가 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지네스 데 팔라시오스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신가요? 물론 교회 말입니다.’ 하고 물었어요.

마치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분의 양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예, 맞아요!’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원들이 더 있었어요.”

마리아나도 이렇게 덧붙였다. “안드레가 우리를 모으러 왔을 때 아주 기뻐요. 우린 뭔가 심오한 것, 교회 회원으로서 느끼는 우정 이상의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죠.”

#### 내부 단합

안드레가 주축이 되는 사람들을 모으자 그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네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만 있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따금, 때로는 매일, 주로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어요. 선교부에서 보내준 서적들과 성경, 그리고 물론경을 공부했죠.”

아라셀리 두란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우린 단합이 아주 잘되었고, 매주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지네스도 이렇게 덧붙였다. “강하게 단결된 느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함께 뭉쳐야 할 때임을 아신다는 느낌이 함께 했어요. 그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해요.”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 가르쳤으며, 함께 신앙을 쌓아갔다. 곧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8년 초에는 공식적으로 지부가 조직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부는 점점 커졌고 회원들이 함께할 자리가 부족해졌다. 그들은 작은 집을 세내었고, 그 다음에는 한때 호텔로 쓰이던 큰 건물로 옮겼다. 이 큰 건물에서도 회원들은 계속 늘어나 참석 인원이 100명에 육박했다. 활동화 노력과 이사 오는 사람들 덕분에 지부는 성장했지만 정말 큰 힘은



아래: 다니엘 칼라푸차와 안젤라 칼라푸차; 아라셀리 두란과 자녀들. 엘레나 세데노가 거주할 집을 짓는 일을 도운 갈라파고스 지부 회원들. 갈라파고스 제도 지부 집회소.

개종자들에게서 나왔다.

오스왈도 빌론과 그 아내인 로사리오 빌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로사리오는 2000년에 침례를 받아 상호부조회 회장, 초등학교 회장,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다. 아내보다 일 년 늦게 침례를 받은 오스왈도는 현재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한다. 이 두 사람은 교회로 개종한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스왈도는 “교회가 저를 구한 셈이죠.” 하며 말을 이어간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술을 마셔댔으니까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스물다섯 명의 사람들이 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린 정말 단합이 잘 되었고, 지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갈라파고스 회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성찬식 참석 수는 보통 100명에서 120명 사이를 유지했고, 2009년 9월에는 집회소를 헌납하는 축복을 받았다.

### 봉사에서 나오는 힘

몇몇 지부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산타크루스에서 풀이 무성한 고지대에 산다. 지부 지도자들은 바로 이곳에서 2010년 9월 4일에 봉사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스왈도는 이렇게 말했다. “장로 정원회에서는 매달 한두 번 mingas(봉사 활동)를 하려고 노력해요. 봉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죠. 이번에는 한 자매님에게 집을 지어 드릴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의 절반을 짓는다는 말이다. 일주일쯤 전에 회원들이 이미 절반을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날은 장로 정원회 회원들 중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섯 시간 이상에 걸쳐 부엌과 수도 시설, 집 주변 통로를 포함하여 나머지 절반을 지었다. 이 아담한 집은 당시에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엘레나 세데노와 자녀들이 생활할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회원들이 베풀어준 시간과 노력에 매우 기뻐했다.(엘레나 세데노 자매와 아들 세바스티안은 2011년 1월에 침례를 받았다.)

오스왈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지요.”라고 말한다. 그와 지부 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봉사를 받은 엘레나의 눈빛은 봉사에서 생겨나는 단합을 증거해 준다.

### 정말로 중요한 일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회원들은 서로





봉사하고 의지하면서 강한 단합을 형성했고 그러한 단합은 2007년에 결실을 맺은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졌다. 그 해에 데이비드 팔라시오스와 지네스 팔라시오스는 지부 회원 다섯 가족, 모두 합해 약 25명을 데리고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으로 갔다.

지네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 가족들이 인봉받는 모습을 보며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 다섯 가족 모두 현재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성전을 방문한 이날 지부 회장인 다니엘 칼라푸차와 아내 안젤라 칼라푸차는 부부로 인봉되었고 그들의 세 자녀도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칼라푸차 회장은 “성전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참으로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가족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하면 삶은 변화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는 이유죠. 가족이 함께 인봉을 받고 나니까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죽으면 가족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은 이제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무도 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간증이랍니다.”



### 갈라파고스 제도 행정구획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 영토이다. 영토 약 97퍼센트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나머지 지역도 상업, 관광업, 농업에 종사하는 2만 5천 명쯤 되는 주민이 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 넓다.





아래: 에콰도르  
오타발로에서 교회에  
들어온 후 일자리를  
찾아 갈라파고스 제도로  
온 푸에레스 가족.  
오른쪽 아래: 엘레나  
세데노(왼쪽)와 여동생  
마리아. 엘레나는 마리아의  
도움으로 올해 초에 교회에  
들어왔다.

### 갈라파고스에서 배우는 교훈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모든 교회 회원은 현대의 개척자이다. 거의 모든 성인 회원들이 개종자이며, 대다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교회에 들어왔다. 회원들은 자원이 부족한 외딴 섬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섬에서는 음식 대부분과 휘발유, 공산품과 기술 관련 생산품 전량을 수입해야 한다. 그 지역 경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기는 하지만 변화가 심한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편이다.

이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변함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왕국 건설에 보이는 헌신이다. 그 헌신은 그들이 사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의존성만큼이나 놀랍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태계는 주변 자연 환경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래서 생태계의 동식물들은 한 개체로든 종으로든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여행 가이드이자 동식물학자로서 안드레는 이렇게 설명한다. “갈라파고스는 우리에게 생태계가 생물과 같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몸과 같아서 압력, 분비액, 기관도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모든 것이 고통을 받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웅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갈라파고스에는 토착종이란 것이 없다. 생명체와 식물과 동물, 사람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왔다.

안드레가 이 점을 설명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 갈라파고스에서 생명이 시작될 확률은 믿기 힘들 만큼 희박합니다. 우선, 화산암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할 정도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물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싹을 틔울 상태가 되면 씨앗이 있어야겠죠. 또한 식물은 서로 가루받이(종자식물에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일로 바람이나 곤충, 새, 또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짐-옮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동물이 물에 떠서 오든, 바람에 날려오든 어떤 방법으로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암수가 동시에 같은 장소와 조건을 갖춘 곳에 도착해야 번식을 하고 물과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갈라파고스에는 수천 종에 달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1,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주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이루신 일이다.

생태계 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작용해야만 번성하듯이 교회 회원들은 일종의 사회적 그리고 영적 생태계를 형성한다. 회원들은 또한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 와드와 지부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각 회원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부 회원들이 구원과

승영에 이르도록 공헌하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1997년 어느 날, 안드레가 교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과 같은 개인의 결정은 영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회원들의 단합된 결정은 옛 격언이나 나을법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회원들에게 그러한 결정은 그들의 강한 신념과 단결력, 그들이 맺은 성약에 대한 믿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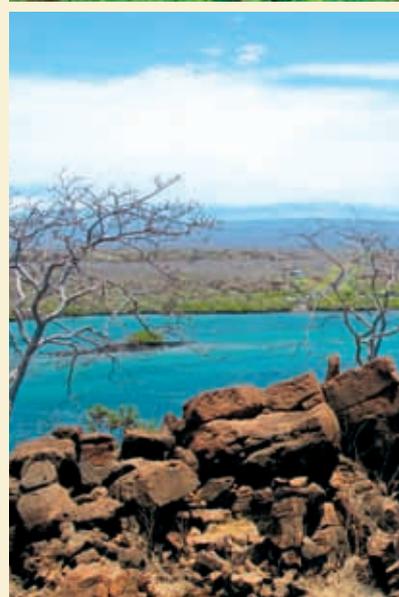


## 풍요로운 땅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많은 곳이 바람과 물이 만든 풍화작용으로 깨져서 모가 나고 표면이 거친, 단단한 화산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지역들은 부채선인장, 유창목, 갈색과 회색을 띤 초목으로 덮여 있다. 거대한 이사벨라 섬과 같이 생긴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섬에 가보면 태초로 다시 되돌아온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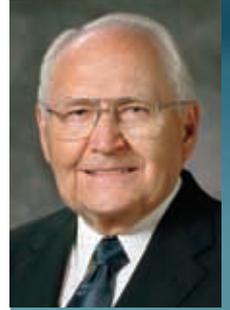
하지만 활기가 흘러 넘친다. 특히나 산타크루스 섬이 그렇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홍수림 지대가 펼쳐져 있다. 해발이 높은 북쪽 내륙으로 갈수록 기후대는 푸른 풀이 무성한 온대로 바뀐다. 이 온대 지방에서는 열대 과일과 기타 농작물 재배를 비롯한 농업이 활발하다.

지부 회장인 다니엘 칼라푸차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갈라파고스를 단지 바위와 화산암과 새들만 있는 땅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지부 회장 다니엘 갈라푸치가 말하듯이 그들은 목장과 소떼 그리고 과일 나무로 축복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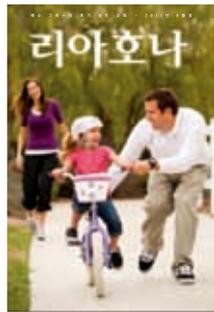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의롭고 균형 잡힌 삶의 전통

하나님은 세상에 모범이  
되고 균형잡힌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소망을 가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균형잡힌 삶이란 이  
필멸의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삶의 형태입니다.



저를 비롯한 나이가  
지긋한 회원들은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개척자  
시대는 우리에게 훌륭한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개척자들은 위대한 단합

정신을 길렀습니다. 생존 문제 자체가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결한 물몬 개척자  
가족의 3대손입니다. 물론 저는 현대식 주택과  
자가용이 있고 대학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은 개척자들의 생활과 판이하지 않으며,  
그분들이 세운 전통은 저희 집과 와드, 지역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사랑하셨고, 모든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가족에게 전해주려고 매우  
헌신적이셨습니다. 세 끼 식사 때마다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옛날 좋은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학교나 와드가 사교 활동을 하는

**길** 이 기억될 만한 뮤지컬인 지붕 위의  
바이올린 서두에 주인공 테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작은 마을 아나테프카 주민 모두가  
지붕 위에 올라간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부러지는 일 없이 기분 좋고  
간결한 선율을 연주해내려 하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위험한데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느냐고 묻고 싶겠지요? 그건  
바로 아나테프카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균형은 어떻게 잡냐고요? 그건 한 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통'이지요.

우리에게 전통이 있기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전통이  
있기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압니다.”<sup>1</sup>

중심지였습니다. 와드 회원들이 우리의 운동 모임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드 무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성탄절과 독립기념일, 개척자의 날, 마을 농축산물 품평회와 같은 기념일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역 축제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가족 전통에서 우리는 기본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전통이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합니다. 한 살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 아기를 방 한쪽 끝에 앉히고 나머지 가족은 맞은 편 끝에 자리를 잡습니다. 식구들은 자기 쪽 바닥에 아기 우유병과 장난감, 작은 저금통과 경전, 이렇게 네 가지 물건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기어가 그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저는 저금통을 선택했고, 나중에 재정 이사가 되었습니다. 제 형제 중 경전을 집은 테드는 평생 독서를 좋아했으며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인 밥은 저희 집안에서 다재다능한 일꾼이었는데, 경전으로 기어가 그 위에 앉아서 저금통을 붙들어 자기 발치에 두고 한 손으로는 우유병을 집어 입에 문 다음에 다른 손으로는 장난감을 잡았습니다. 밥은 회계사가 되었으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품목을 견본으로 삼아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우유병은 우리의 신체 건강을 상징합니다. 경전에서는 우리의 몸이 영원한 진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여기라고 하시며

높은 표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동안 교회 회장님들과 함께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는 특별한 기회를 많이 누렸습니다. 회장님들께서는 언제나 헌납 예배 전에 새로운 성전이 어떤 솜씨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싶어하셨습니다. 성전은 외관 상으로도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성전 주변은 항상 성전이 건설된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그 앞에서 보십시오. 주의 깊게 주님의 집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영을 담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몸이라는 성전을 어떤 면에서 개선시켜야 할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몸을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신권 의식과 성전 추천서, 교회 부름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와 같은 표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세운 높은 표준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과 복리로 인도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생활 방식과 이상, 표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며 그러한 삶은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화점 업계에서 종사했습니다. 경영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 조직과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와 같은 만남 대부분은 늘 칵테일을 마시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섞여 어울리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언제나 그런 시간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레몬 라임 소다가 주문하곤 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레몬 라임 소다가 다른 주류들과 비슷해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소다를 손에 쥐고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를 성장과 복리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루트 비어(사사프라스 뿌리 등으로 만든 즙에 이스트를 넣은 음료-옴긴이)로 바꾸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을 각인시킬 음료를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텐더에게 다가가 우유 한 잔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주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그 바텐더는 주방으로 들어가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알코올 음료와는 전혀 다른 음료를 손에 들었기에 이내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든 음료수를 놓고 수많은 농담이 오갔습니다. 제가 마시는 우유가 대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저는 그 어떤 칵테일 모임에서보다도 더 많은 기업 지도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유는 칵테일 모임에서 제가 마시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제가 물몬이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저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사람들도 100% 우유로만 만든 칵테일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에서 배운 표준대로 살아 가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셨던 조셉 비 워스틴(1917~2008)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과 영이 건강해야 협착하고 좁은 길에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건강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현대 의학이 한결같이 검증해주는 ‘약속의 원리’입니다.(교리와 성약 89:3) 지혜의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영적인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9:34~35 참조) 우리는

스스로를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더 보살피야 합니다.”<sup>2</sup>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거하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복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 세상의 장난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척 흥미로운 곳입니다. 세상의 장난감에 대한 욕망이 물밑듯이 물려옵니다. 선진국들은 그 사상과 행동이 심히 세속적으로 변하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율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사회 일부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에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낮아져 바벨론 곧 무너질 대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교리와 성약 1:16)

이와 같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 뿌리 내린 사회는 엄청난 영적, 윤리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면 극단적인 세속화와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공공 윤리와 개인 윤리가 쇠퇴하며 권위가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확실 할 수 밖에 없는 세속화 된 세상의 변잡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과 치유, 희망과 평강을 얻을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와 같은 세속적인 생활 방식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순서를 보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합니다. 곧 영생으로 가는

**필멸의 삶은 먼저 하나님과 복음을 배우고 의식을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그처럼 고결한  
신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정직하며  
성실하다고 하는  
명성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인격은 오래  
지속되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합니다.

길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배워야 하며,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 배움이 짧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필멸의 삶을  
사는 몇 십 년에 걸쳐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의롭게 살았기에 그들은 신이 되는 길에  
들어섰으며 세상을 창조하고 영원한 증식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도  
완벽한 과학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것을 익히고 실천하는  
시간은 단 몇 십 년밖에 보내지 않았으며 반면에

지질학과 지구 창조에 관한 동물학과 생리학,  
심리학과 같은 세속적 지식을 익히는 데는 이미  
19세기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멸의 삶은  
먼저 하나님과 복음을 배우고 의식을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위에 확고히 선 후에 더 많은 세상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세상의 지식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해의 왕국으로 이끌어  
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도,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자신의 모든 지식을 주님의 도구이자 종이  
되는 데 사용할 사람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무척  
유용할 것입니다.”<sup>3</sup>

하나님의 것을 구하십시오.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경전에 몰입할 때  
신앙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얻습니다.



### 훌륭한 성품을 키우십시오

구주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누가복음 14:28~30)

미래를 준비할 때, 이 필멸의 경험에 쏟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영원한 축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언제든 빠르게 혹은 느슨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뜻밖의 횡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좋아하고 때로는 좋은 관습에서 유래된 규칙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이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빠 움직이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한 규칙대로 살라고 더 큰 유혹으로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수확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둘 것임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선을 심으면, 또한 보상으로 선을 거두리라.”(교리와 성약 6:33)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철칙입니다.

“성품은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명성은 이웃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성품은 사람 안에 존재하며 명성은 이웃으로부터 옵니다. 성품이 본질이라면 명성은 그림자입니다.”<sup>4</sup>

좋은 성품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없고 특별한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품은 타고난 선물도 아니고 부모 아니며, 재능이나 계급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이고, 유덕한 원리를 실천하며 의롭고 영예로운 삶을 살 때 찾아오는 보상입니다.

그처럼 고결한 신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정직하며 성실하다고 하는 명성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인격은 오래 지속되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야말로 당신이 모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경전에 관한 느낌을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에는 나의 영혼에 속한 것과 늦쇠판에 새겨져 있는 경전을 많이 기록하노니,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니파이후서 4:15)

성경과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와 같은 경전에서 우리는 풍성한 믿음과 지식을 얻습니다. 각 경전 속에서 우리는 영감이 흐르는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 흐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우리의 구속주이며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계명을 지켜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약의 백성이며 우리가 맺은 성약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은 후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경전에 몰입할 때 신앙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매일 처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얻습니다. 기도과 더불어 경전을 자주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적용할 때 강하고 살아 있는 간증을 얻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지속해서 경전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관계에 소홀해지고 하늘에서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제 자신을 느낍니다. 스스로 경전에 몰입할 때 그 거리는 좁혀지며 영성이 회복됩니다.”<sup>5</sup> 날마다 경전 공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세상에 모범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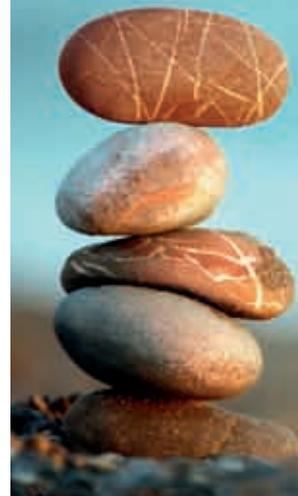
우리 세대는 빠른 속도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된 새로운 후기 성도 세대에게 이 횃불을 넘겨주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우리의 경이로운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킵니다.
2.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과 영적인 배움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3. 신뢰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고, 나아가 영원한 복음 진리를 기초로 표준과 가치를 세워 생활합니다.
4. 경전에 담긴 영원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모범이 되고 균형잡힌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소망을 지닌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균형잡힌 삶이란 이 필멸의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삶의 형태입니다. ■

2010년 1월 15일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Joseph Stein, Jerry Bock, Sheldon Harnick, *Fiddler on the Roof*(1964), 2~3.
2. Joseph B. Wirthlin, “The Straight and Narrow Way,” *Ensign*, Nov. 1990, 65쪽.
3. Spencer W. Kimball, *President Kimball Speaks Out*(1981), 90, 91, 92쪽.
4. Henry Ward Beecher, in Tryon Edwards, comp., *The New Dictionary of Thoughts*(1944), 67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터블유 김볼(2006), 67쪽.



## 우리 집이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열** 아홉 살 때,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적군이 유럽에 있는 내 고향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다.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폭격기가 밤 중에 우리 집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등불을 가리기 위해 쳐둔 커튼 틈새로 적군을 보았다.



그들은 오토바이와 트럭과 탱크를 타고 각각 두 방향에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렸다.

늘 신앙심이 깊었던 아버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우리 집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놀라웠다. 우리는 모두 군인들이 집들을 약탈하기 위해 우리 쪽으로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파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저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어 우리 집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가 기도를 마치자 어머니도 기도를 하셨다. 그런 후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탁자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창 밖을 내다보았다. 군인들은 우리 집 앞 도로를 따라 서 있는 집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침입했다. 그들은 도로 끝에 위치한 우리 집으로 다가왔으나 우리 집 현관문을 지나쳐 옆 도로로 갔다. 우리는 우리 집 창문에서 보이는 모든 집에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약 두 시간에 걸친 침입이 있은 후, 누군가가 호각을 세게 불었다. 그러자 군인들은 모두 각자 차량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서서히 떠나가자 우리는 크게 안도하며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친절과 보호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날 나는 한 친구로부터

**우리는 등불을 가리기 위해 쳐둔 커튼 사이로 적군이 각각 두 방향에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겁에 질렸다.**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듣게 되었다. 내가 친구에게 군인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자 그 친구는 깜짝 놀랐다. 그 친구는 군인들이 우리 집 방향으로 오는 모습을 푹푹히 보았으며, 우리 구역에서 그들이 침입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 집만 유일하게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조바심에 성급히 응답을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6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즉각 응답을 해주셨다. ■

엘리스 더블유 플레이드, 미국 유타

## 영의 느낌이 그리웠다

**열** 여섯 살 때, 나는 일 년간 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집을 떠나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갔고, 그곳 후기 성도 가정에서 지냈다. 그 전에는 후기 성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는 그 가족이 나에게 전도하는 것도, 내가 선교사를 만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모든 교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기로 했다.

나는 그 가족에게서 영을 느꼈고, 교회에서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 당시에는 내가 느끼는 것이 영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내 마음은 감화되었다.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오자 그 느낌이 너무나 그리웠다. 내가 교회에 가고 복음 가르침에 따라 생활했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지가 떠올랐다. 나에게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알았지만 내가 사는 곳에는 교회도, 선교사도 없었기에 그런 느낌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약 4년이 지난 후, 선교사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을 보니 정말 기뻐했다. 그 선교사들은 전도를 하다가 영의 속삭임을 듣고서 우리 집으로 인도된 것이다. 그들이 속삭임을 따랐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 이후로 나는 러시아 출신 귀환 선교사인 남편과 함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봉을 받았다. 이제 키예프에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하기로 했다.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놀라운 장소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큰 선물 중 하나를 성전에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영원히 인봉되는 것이다.

내가 영을 느끼도록 도와준 후기 성도 가족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결국 나의 가족이 영원히 인봉되기에 이르렀다. ■

빅토리아 미콜리나,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을 경축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 행사를 담은 영감 어린 비디오를 보려면 [LDS.org](https://www.LDS.org)에 접속하여 “Kyiv Ukraine Temple video[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비디오]”를 검색한다.



## 교회로 가십시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미술반에서 후기 성도 여학생을 만났다. 그 여학생은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나는 곧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이다호 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트럭에 트레일러를 걸고 북쪽으로 운전하기 시작했다. 네바다 주 리브락을 막 지날 때 나는 작은 언덕 내리막길에서 속력을 내며 운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트레일러를 고정시키는 안전바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일러는 심하게 흔들렸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자 트레일러는 기울어지며 구덩이로 떨어졌고 트럭은 반대쪽으로 뒤집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엉망이 되었다. 트레일러

연결부는 망가지고 창문은 모조리 깨졌으며 물건들은 여기저기 나뿔궂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했고 견인차를 불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하셨고 수중에 있는 그 적은 돈은 견인 비용으로 써야 했다. 그 순간, 다음 날인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아버지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 물건을 한 데 모으고 트레일러를 고쳐야 하는데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고 몸도 편찮으셨으므로 내가 큰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영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께 내 대신 아버지께 양해를 구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승락해 주셨다.

일요일 아침, 집회소를 찾아내고 이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트레일러 연결부는 엉망으로 어그러졌으며, 창문은 모조리 깨졌고, 물건들은 여기저기 나뿔궂었다.

막 성찬식이 시작되는 예배실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이 어려운 때에 영이 우리 가족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간구했다.

모임이 끝난 후 한두 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셨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 후 나는 우리가 야영하던 곳으로 돌아와 주변 정리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우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가 참석했던 워드 회원들이 도착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우리 가게 주인인 한 회원은 트레일러의 모든 유리창을 무료로 갈아주겠다고 했고 용접 기술이 있는 한 분도 돈을 받지 않고 연결부를 펴 주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놀라신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셨고, 나와 누이 동생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아이다호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성령의 속삭임이 실제임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응답되며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깃든다는 점을 깨달았다.

■ 드와이트 르로이 데니스, 미국 유타 주

## 이렇게 좋은 우리 집을 팔아야 합니까?

**19**98년, 나는 더없이 좋은 우리 집을 팔아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그 집은 우리가 지어서 이사한 지 겨우 4년밖에 안 된 주택이었다. 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집이 필요 이상으로 넓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때 막 일자리를 바꾸었던 나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그러던 중 그 해 10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 말씀을 듣고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재정과 관련해 그분은 신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집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경고도 하셨다. “우리 앞에 폭풍우의 전조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은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덧붙이셨다. “물론 집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리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삽시다. 그리하여 길게는 30년 동안 계속하여 우리 머리 위에 무자비하게 매달려 있을 상환금을 줄여봅시다.”<sup>1</sup>

나는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아내는 동의했다.

그 뒤 몇 개월 간 우리는 집을 팔고 또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 준비했다. 많은 기도와 가족 금식이 필요한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었다. 마침내 일 년 뒤,

우리는 훨씬 더 적은 돈만 부담해도 되는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은 선견지명이 깃든 말씀이었다. 이듬해 닷컴 버블(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 국가의 주식 시장 지분 가격이 급속히 상승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거품 경제 현상-웁긴이)이 꺼지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정점에 올랐다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뒤 몇 년 간 저금리가 이어졌고, 그것은 우리가

**그해 10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참석했을 때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으며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했다.**

주택담보 부채금을 갚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는 1998년처럼 지금도 여전히 적용된다.

선지자의 말씀과 영의 속삭임을 귀 기울였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에게 이제 갚아야 할 주택 상환금이 없다. 그리고 자녀들이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고대하며 매 연차 대회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들의 권고에 귀 기울일 때 축복을 받는다는 점을 안다. ■

설리반 리처드슨, 미국 네바다 주

주

1. 고든 비 힝클리,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3쪽.



#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 졸린 한센

**나**는 자리에 앉은 채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자르만 형제님을 뵈히 쳐다보았다. 지부 회장단인 그 형제님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 형제님은 교사나 보좌라는 말을 하려고 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들은 말이 정확했다. 그분은 작은 우리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서 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겨우 스물일곱 살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새 직업으로 신문잡지 기자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지도자로 봉사한 경험도 별로 없다. 여러 해 동안 몇몇 부름에서 봉사를 하긴 했지만 이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이 부름에서 봉사할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는지, 충분한 경험은 있는지, 또는 봉사할 능력이라도 있는지를 조용히 자문해

보았다. 내가 지부 자매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축복사의 축복문이 눈에 들어왔다. 축복문에는 “그대는 어린 나이일지라도 그대에게 지금 하라는 임무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 글을 읽고서 이것이 결혼 상태나 나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관한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교회 부름에 봉사할 자신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가까이 봉사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할 자격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임무에 대해 기도하고 수행하도록 받은 부름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하늘에 도움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이는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찾을 것을 구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율이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원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67쪽.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며**

**청**소년 활동 지도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나는 수줍음이 많은데다 활동을 계획하는 일에 서툴렀다. 내가 부적합하다는 느낌과 불안, 우울한 마음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절한 기도로 매달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미약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내 가슴에 평화롭고 나지막한 속삭임이 와 닿았다. “가거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온 그 응답이 나를 강하게 해주었다. 그러한 영의 속삭임 덕분에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지해 주실 것이라는 깨우침으로 부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 부름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을 찾는다면 인도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구예경, 한국

**부름을 수행하면서 얻는 성취**

**나**는 독신 성인으로서 와드에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부름에 봉사하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음을 알게

지부 자매들은 각기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부름을 수행하며 그들을 도왔다. 특히 내가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한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분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생활 방식이 달랐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정을 쌓아갔다.

저활동인 자매도 만났는데, 선교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자매에게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 떠오른다. 그 자매는 단지 활활 타오르는 데 필요한 약간의 ‘촉매제’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거실에 앉아서 그 자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영이 강하게 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간증하라고 속삭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 자매는 이따금씩 교회에 왔다. 그러나 나는 계속 영의 인도를 받아 그 자매에게 간증을 전했다. 현재 그 자매는 활동 회원이고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내 부름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 중 몇 가지이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교회와 직장일 사이에 균형을 찾으며, 부족하다는 느낌을 극복하는 일은 치열한 싸움이였다.

나는 결국 내가 영의 도움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은 그 부름에서 해임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가끔 나는 그 부름이 자매들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새겨본다. 그 부름을 수행하면서 젊은 독신 자매인 나에게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직분에서 봉사할 자격이 안 된다고 여기긴 했지만 내 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일을 할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

되었다.

나는 현재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청남 조직에 속하면서 집사들과 함께 금식 헌금을 모으고, 와드 저활동 회원들을 만나고, 청소년 대회와 상호 향상 모임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일도 즐겁다. 나는 이 부름에 봉사하면서 청남들이 성인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인정해 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경험은 내가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내 삶에 축복이 되었다.

매트 카터, 미국 유타

## 영향력을 주는 부름

**나**는 청녀 조직에서 장미반 고문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서 내가 과연 그 부름을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내가 그들 나이였을 때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청녀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나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는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부름을 받고 몇 주가 지난 후 청녀 행사에 참여하면서 바뀌었다. 그 행사에서 한 어머니는 청녀 프로그램 덕분에 딸이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키웠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내 부름은 일요일에 공과를 가르치고 활동 계획을 돕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 청녀들이 성전에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돕는 부름이다. 나는 청녀들이 인생을 준비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다.



*봉사할 기회를  
받아들일 때 문슨  
회장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부름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두 아신다. 그 점을 안다면 우리가 특정 임무를 받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름을 수행할 우리의 역량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봉사할 기회와 우리가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전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조지나 털리알로, 뉴질랜드

## 음악으로 나누는 간증

**나**는 복음 안에서 자랐지만 열여덟 살이 되면서 저활동이 되었다. 이후 동독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왔을 때 회원 가정에서 생활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교회에 다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었다.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청년 성인 센터 회장단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에는 종교 교육원 수업, 가정의 밤, 기타 활동을 조정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할 일이 무척 많았지만 센터가 그 지역 청년 성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므로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이 부름을 수행하면서 청년 독신 성인 합창단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합창단에 들어갔다. 합창단은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으로 순회 공연을 떠났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으며, 음악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뻐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우리의 순회공연을 보고 누군가가 교회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이메일로 전해 들었을 때는 더없이 행복했다.

나는 부름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었고,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 또한 강화되었다. ■ 펠릭스 세이들, 독일

## 다른 자원에서 도움 얻기

**새**로운 부름을 받아 자신이 맡은 책임들을 익히려고 노력하다 보면 버거운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와 지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런 자원들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부름을 수행하고 봉사하며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 **지침서.** 지침서에는 책임이 설명되어 있다. 부름을 받으면, 지침서에 나오는 여러분의 책임 부분을 자세히 공부한다.



- **감독단, 지부 회장단, 다른 지도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이전에 그 부름에서 봉사한 사람.** 이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경험이나 조언을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부름을 맡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며,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영감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 **교회 웹사이트.** LDS.org에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이 있다. 한 예로 들 수 있는 곳은 “Serving in the Church[교회에서 봉사하기]”이다. 그곳에서 “Handbook 2[지침서 2]”를 클릭한다. 그 후 언어를 선택한다.

##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친구는 어쩌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언급한 성경 몇 구절을 읽었을지 모릅니다.(출애굽기 33:20; 요한복음 1:18; 디모데전서 6:14~16; 요한1서 4:12 참조) 이 성구들은 야곱이나 아브라함, 모세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밝힌 다른 성경 구절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창세기 18:1; 32:30; 출애굽기 33:11; 이사야서 6:1 참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도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진술한 네 성구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성구들에 관하여 영감에 따라 수정을 했는데, 그에 따르면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변형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67:11 참조)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 값진 진주에서는 모세가 육에 속한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모세서 1:11 참조)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제8조) 아울러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와 후기의 경전에 관한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태복음 5:8)라는 경전 구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는 것



엘마는 자연의 특성 하나 하나가 무한한 복잡성과 조화를 보여주며 절대적인 창조주를 증거한다고 가르쳤습니다.(엘마서 30:44 참조) 이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성신을 통해 매일 생활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느낀다는 간증을 나눌 멋진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위해 꼭 그분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평생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휘장 저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영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제닐 이, 18세, 미국 워싱턴 주

###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한번은 룸메이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성신을 느낄 수 있고, 바로 그 성신을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는 증거를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깊어지고 제 영혼은 평화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제게는 신앙이 있고, 그분의 영을 느끼므로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피, 18세, 베네수엘라 라라

### 마음을 엽시다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볼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간증을 나눌 때 그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두 눈과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자신들을 서로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케이틀린 이, 16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저에게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분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그분을 만날 시간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부활한 후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7:9 참조) 그리고 나서 저는 간증을 나누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며, 희망을 품는 일이라고 말해 줍니다. 친구들도 신앙이 있다면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뵈는 것입니다.

다이나나 비, 18세,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제 동반자와  
함께 저는 남녀 한  
쌍을 가르치면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 스미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앞에 나타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 제 손목시계  
알람이 울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튿날, 저는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민수기 12:6)  
저는 이 구절이 그 형제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방문에서 우리는 선지자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  
성구를 보여주었더니 그 형제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두 눈이 눈물로  
글썽거리더니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네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 후 우리는  
하나님을 본 목론경의 선지자들에  
대해 가르쳤으며, 형제님은 그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아즈 장로, 25세, 멕시코 메리다 선교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뵈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영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전을 읽고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그분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그분을 직접 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나 조셉 스미스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본 선지자들은  
그분을 보기 위해 변형되어야  
했습니다.

아론 에프, 12세, 미국 오리건 주

**간증을 나누세요.**



언젠가 제 친구  
하나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고 저는 그  
친구에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그 구절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18절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요한은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에서 배운 다른 성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모세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성신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친구 질문에 답변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엠, 17세, 마토 그로스, 브라질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지식**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를 알고 싶다는  
소망을 부지런히

키우십시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게  
만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경전을]  
연구”(요한복음 5:39)하고 겸손하게 그  
안에서 배우라는 구주의 명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참된지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여쭙볼 준비가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고요하고 작은 영의 속삭임, 즉 성신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전하는 생각과  
느낌으로 그분께서 살아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32쪽.

**다음 질문**

**“음란물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1년 9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9/11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동의서  
(이메일도 가능)



앨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우**리의 첫 번째 책임과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알도록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큰 책임에 대한 답변으로서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 '정치적 올바름(표현이나 용어에서 인종, 민족, 종교, 성차별 등과 관련된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나타낼 때 쓰는 말. 특히 다민족국가인 미국 등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게 된 용어-옮김이)'이라고 하는 강력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잘 압니다.

이 시대에 성행하는 여론은 모든 교회가 참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똑같다는 생각은 적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물론경에 나오는 코리호어에 관한 기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앨마서 30장 참조) 그 내용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직후인 1831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을] …… 권능”을 받은 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서는 이 교회를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고 하시며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0)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교회, 곧 우리 교회를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발언은 때때로 다른 교회에 속하거나 다른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감정을 일으킬 그 무엇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틀림없이 모든 교회와 철학에는 진리의 요소가 담겨 있으며, 일부 어떤 곳에는 다른 곳에서보다 더 많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복음 계획은 의심 없이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특징, 즉 (1) 교리의 충만함, (2) 신권 권능,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고 선언하셨고, 그분의 종인 우리가 왜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지를 설명합니다.

## 1. 교리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자녀들의 영원한 진보를 위해 세우신 계획, 즉 그분 교리의 충만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후, 이 복음 진리 중 많은 부분이 여러 원리나 철학과 섞여 상실되었으며, 그런 후 기독교가 전파된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계시에 기초합니다.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그분이 소유한 신권 열쇠를 통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 있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이 교회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가 그분의 관계에 대해 계시된 진리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기독교 종파의 공식 교리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유일한 공식 선언인 신앙개조는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는 조항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신화를 믿고 있지만 다른 기독교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신화의 세 구성원이 독립된 개별 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몸이 있는 영화로운 존재이고 부활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각각 분리된 존재이지만 목적에서는 하나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은 하나님의 본질과 신화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 그릇되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운명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7~19) 그 후 계속해서 주어진 현대 계시에서는 이 기본 진리의 중요성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또한 몰몬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몰몬경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더불어 그분의 본질과 사명에 관한 가르침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전하신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몰몬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알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유서 깊고 훌륭하다 해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계시에 기초합니다.(고린도전서 2:1~5; 니파이후서 28:26 참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무엇을 확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비길 데 없는 성역을 베푸셨기에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아담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깨끗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주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진리를 엄숙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그분의 복음은 참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교리와 성약 34:2 참조) 그분은 불멸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요한복음 14:6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저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신은 저에게 그것이 참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선언하며 일생을 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

2010년 6월 25일,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 노래와 기도

딜런은 높은 음을 낼 수 없었을 때 더  
높이 계신 분에게 도움을 구했다.

**딜**런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그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열여섯 살 난 통가인 딜런은 “노래 부르기는 무척 좋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한다.

통가 교회에서 구약전서 세미나리 노래를 통가어로 녹음할 회원을 뽑는 오디션에 하겠다는 공고가 나왔을 때 딜런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상상해보라. 딜런은 기분이 들뜨기도 했지만 죽을 만큼 두렵기도 했다.

그 음반에 나오는 노래 세 곡은 남성이 불러야 했다. 딜런이 오디션 노래를 부르자 제작자는 음반에 있는 다른 노래도 불러보라고 주문하여 그를 놀라게 했다. 딜런은 잔뜩 긴장한 채 노래를 불렀고, 제작자는 “책임자를 찾았군.” 하고 말했다.

무척 흥분되고 당황스럽게도 딜런은 세 곡 모두를 녹음하게 되었다.

## 딜런의 재능, 딜런의 두려움

통가 누쿠알로파 스테이크 마우판가 와드 회원인 딜런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다. 딜런은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선발된 약 10퍼센트 통가 학생 중 한 명이며 세미나리에도 즐겁게 참석한다. 딜런의 어머니인 말레니타 마헤는 이렇게 말한다. “딜런은 세미나리에 가려고 새벽에 우리를 깨운답니다.”

하지만 딜런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들은 딜런이 일 년간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위해 독창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까지 그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딜런의 어머니는 “딜런은 늘 수줍음이 많았어요.”라고 말한다.

딜런은 초등학교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무척 잘 불렀기에 통가

누쿠알로파 스테이크 대회에서 노래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이후로 딜런은 노래에 매료되었다.

딜런은 어머니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 제 재능을 쓰겠어요.”라고 말했다. 세미나리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되자 딜런은 어머니에게 “엄마, 제 재능을 사용했어요.” 하고 말했다.

딜런의 형인 시오네는 딜런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격려한다고 말한다. “저도 딜런과 같은 재능을 갖고 싶어요. 모두들 딜런이 그 재능을 나누기를 바라죠.”

딜런의 누이인 피는 “오빠가 부르는 노래가 좋아요.”라고 말한다.

아홉 살 날 남동생 파올라는 “언젠가는 딜런 형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딜런은 가족들의 지지에 고마워한다. “전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가족의 도움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 더 높은 곳에 도달하고자

딜런은 음향 지원팀과 함께 녹음 작업을 하면서 음 하나 때문에 애를 먹었다. “아무리 해도 그 음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 시간 동안 연습했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밤이 되어 지치고 실망한 딜런은 그 다음날 아침에 녹음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집으로 갔다.

“저는 제 방으로 곧장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하고 딜런은 말한다.

딜런은 그 음반이 5만 명이나 되는 통가 교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통가어를 사용하는 회원들 수천 명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딜런은 “어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긴 밤도 없었어요.”라고 말한다.

딜런은 밤 동안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녹음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음을 내어야 말했다.

딜런은 그날을 떠올리며 “할렐루야,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말한다.

## 두려워하지 말라

딜런이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는 여호수아 1장 9절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딜런은 그 약속을 시험해 보고서 그 말씀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 노래를 듣는 이들이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노력을 기울였죠.”

구약전서 세미나리 음악에  
나오는 딜런의 노래를  
들어보려면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  
접속한다.

딜런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딜런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아요.”라고 말한다. ■





# 싱가포르에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

싱가포르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면서 희생하고  
근면할 때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를 배웠다.

미셸 시에, 세리스 웅

**새**벽 다섯 시. 자명종이 울리자 열일곱 살 이문 림은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세미나리에 가기 위해서는 5시 20분에 집을 나서야 한다. 오전 6시 30분이 되면 서둘러 학교로 출발하고 수업과 특별 활동으로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지낸다. 그 다음 대중 교통 편으로 스테이크 센터에 도착해 스테이크 뮤지컬 공연 연습을 한다.

지난 다섯 달 동안 싱가포르 스테이크 청소년 대부분이 매주 금요일을 이렇게 보냈다. 때로는 고단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라는 뮤지컬 공연 준비 기간 내내 불평이나 후회는 없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는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제2와드 소속인 이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동안 참여해 본 그 어떤 모임보다도 놀랍고 영적으로 고양시켜주며 재미있고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었어요.”

## 시작점

스테이크 청녀 회장 케이트 로레토 자매는 청소년을 단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여덟 개 와드에 속한 우리 청소년들은 문화적 배경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에 청소년들이 하나로 섞일 수 있도록 뮤지컬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죠.”

지도자들은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말씀하신 ‘아홉 가지 항목’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골랐다.<sup>1</sup> 제작 총감독 코니 우는 “청소년들이 이 노래 가사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영을 느끼며, 표준대로 살도록 하려고 음악을 골랐다고 한다. 우 자매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뮤지컬에 출연한 청소년은 모두 78명에 이른다.

어쩌면 모든 청소년이 처음부터 똑같은 동기로 모이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정을 나누는 이 기회를 기뻐하고 노래를 즐기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과 함께하는

### 싱가포르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간증과 우정이 함께 공연하면서 강해졌다.

해냈다.

싱가포르 제1와드 회원인 열다섯 살 청남 캔든 피터슨은 합창부 회장으로서 모든 연습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도왔다. 기도를 지명하고, 연습과 놀이에 참여하도록 청소년을 모으며, 무대 배치를 결정하는 것도 그가 맡은 임무였다. “청남 몇 명에게 무대를 설치하거나 내리는 일을 부탁하고, 청소년들이 각자 임무를 다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책임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실 때 성인 중에서만 부르시지 않는다는 점을 친구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나이나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청소년들도 지도자들을 지지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하죠.”

우드랜즈 와드의 열여덟 살 캔더스 림은 의상 위원회와 안무 위원회, 사진 위원회



아만다 호



올리비아 호



마이클 리



이문 림



캔든 피터슨

이 시간을 사랑했기에 꾸준히 연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 함께한다는 것

주제를 정하고 연습 계획을 짰 후, 청소년들의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른 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공연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싱가포르 제2와드 소속인 18세 청녀 엘리 찬은 의상 위원회에 지원했다. “우리는 수수한 의상을 골라야 했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어요. 게다가 저렴하면서도 생기 넘치고, 동시에 무대에도 잘 어울려야 했어요.”엘리는 복음 표준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청소년들을 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이 일을

소속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독창까지 맡아 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이 맡은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해 캔더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가지 일을 맡으라고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저희 엄마세요. 봉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처할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와 같은 관리 직책뿐만 아니라 연기자들도 필요했습니다. 독창 부문에 지원한 용감한 회원들 중에는 클레멘티 와드 회원인 열일곱 살 청남 존 리도 있습니다. 존이 독창에 지원한 동기는 간단합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하면 제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드랜즈 워드의 17세 청년 에스라 태디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아홉 가지 항목 중 참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참됨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를 느낍니다.”

### 적지 않은 희생

연습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어졌다. 그 동안 청소년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밤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연습했다. 평범한 싱가포르 청소년의 뻘뻘한 일상을 생각하면 청소년에게 요구된 시간과 노력은 결코 적지 않은 희생이었다.

베독 워드에 다니는 전문대학 1학년 학생인 올리비아 호도 연습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 인생 길에 어떠한 장애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일으켜주고 진흙탕 길을 건너 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 복음이기 때문이죠. 저를 보살펴주고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그만큼 필요한 것은 없죠.”

다른 책임도 함께 맡아야 했던 청소년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싱가포르 제2와드에 다니는 열여섯 살 난 야만다 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는 학교에서 춤 연습을 하는데, 이번 뮤지컬 리허설 일부와 일정이 겹쳤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학교 연습 시간이 바뀌었고, 뮤지컬 연습에 올 수 있었답니다.”

### 공연 시작!

수개월에 걸친 연습 끝에 마침내 뮤지컬 공연 준비가 마무리 되었다. 십대들의 열정적인 홍보 덕분에 7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여 들었고, 공연은 세 차례 동안 무대에 올랐다. 청소년들은 노래와 춤, 기악 연주와 자신들의 간증을



캔더스 림



에스라 태디나



엘리 찬



세리스 웡



존 리

나누었고,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비회원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해 선교 사업의 기회로 삼아 보라는 과제를 받았다. 열여덟 살인 마이클 리는 이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저는 친구 여섯 명을 초대했는데 학교 친구 세 명과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특히 선생님은 공연에 큰 감명을 받으셔서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고 하시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까지 한 부 부탁하셨습니다. 여러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뿔어져 나오는 희망찬 에너지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을 한 데 모으겠다는 지도자들의 초기 목적이 확실히 성취되었다. 우 자매는 이렇게 표현했다. “공연에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생김새나 노래, 혹은 연기를 잘 하는지, 대사를 잘 전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어느 나라,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하나였죠.”

### 음악에 실린 메시지

이번 뮤지컬로 많은 이들은 간증이 더 강화되었다. 어떤 청소년들은 어디를 가든 콧노래로 음을 익히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노래에 실린 메시지는 청소년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을 헤쳐가는 데 힘이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단순히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 서로를 영적으로 북돋워 줄 수 있는 지원군이 되었다. 그들은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서로를 도왔다. ■

### 주

1. 아홉 가지 항목은 무엇일까요? 감사하십시오, 지식을 쌓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Gordon B. Hinckley, *Way to Be!*(2002) 참조: “청소년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참조.

# 현대의 개척자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175** 년 전쯤에 개척자 성도들이 시작하여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모든 세대의 충실한 성도들이 수행해 온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일했던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그들이 봉사했던 것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복했던 것처럼 극복해야 합니다. ……

주님은 우리에게 손수레에 짐을 실으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신앙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륙을 횡단하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이웃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현대 생활에서 오는 중압감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이미 지어진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시간과 부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이전 세대 후기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헌신적인 참여라는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진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3, 84쪽.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오늘 하는 공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친다.

첫 번째 세대는 모든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 러분은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축복을 받게 하는 첫 번째 세대이자 선택받은 세대가 됩니다. ……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역사 초기 개척자들에 대해 많이 읽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

그들이 남긴 유산은 제1세대 회원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동료가 되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충실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가족을 축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첫 번째 세대이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축복할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폴 비 파이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첫 번째 세대”,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1, 13쪽.

우리는 모두 개척자입니다

**“19** 세기 개척자들 가운데 저의 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평원을 건너 그 초기 개척자들이 저와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영적 조상이며 국적이나 언어나 문화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영적 조상이 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자신이 속한 상황과 영역에서 개척자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임”, *리아호나*, 2008년 7월호, 3쪽.

#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이 주제에  
관한 생각을  
나눈다.

# 경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경전의 기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3~35쪽 참조.



경전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되새기게 하여 우리의 기억을 넓혀줍니다. 경전은 우리가 전세에서 알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하셨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과 위성, CD, DVD, 인쇄물을 통해 거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축복과 함께 주님은 오늘날 경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은 원리와 도덕적인 가치에 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참된 원리를 지킬 때 따르는 축복에 관한 생생한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거울 속 모습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시편 56:4)

실라 킨드리드  
실화에 근거

나는 책가방을 벽장에 걸고 문에 있는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가만히 서서 험령하게 뒤로 묶은 머리와 주름진 셔츠, 늘어진 양말을 바라보았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딸이란다. 그분은 미래에 너에게 주시려고 많은 축복을 준비해 두셨지.”

나는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 거울 속을 들여다 보았다. 열두 살 또는 스물두 살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예쁠까? 똑똑할까? 성전에서 결혼하게 될까? 예쁜 자녀들을 낳게 될까? 이런 건 내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준비해 두셨을까?

“뭘 보고 있니?”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에서 문에 기대 서 계신 엄마 모습이 거울 속에 보였다.

“저요.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보는 거예요.”

엄마는 다가와서 내 어깨 너머로 거울을 보시며 “넌 무척 특별한 존재란다.” 하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많은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어요. 제 인생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엄마는 “내 방으로 오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침실에서 작은 상자를 열어 은색 손거울을 꺼내셨다.

나는 뒷면에 새겨진 B라는 글자를 만지작거리며 “예쁘네요.”라고 말했다.

엄마는 “이건 엄마의 할머니 거울이야.”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거울을 닦으면서 베아트리스 할머니가 이 거울을 들여다 보실 때 무엇을 보셨는지 상상해 본단다. 아마도 처음에는 너처럼 미래를 꿈꾸는 어린 소녀이셨을 거야.

할머니가 침례를 받기 전에 머리를 길게 땅아 내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눈에서 반짝이는 행복한 빛을 보셨다는 걸 상상할 수 있단다. 할머니가 열여덟 살이 되기 전까지는 침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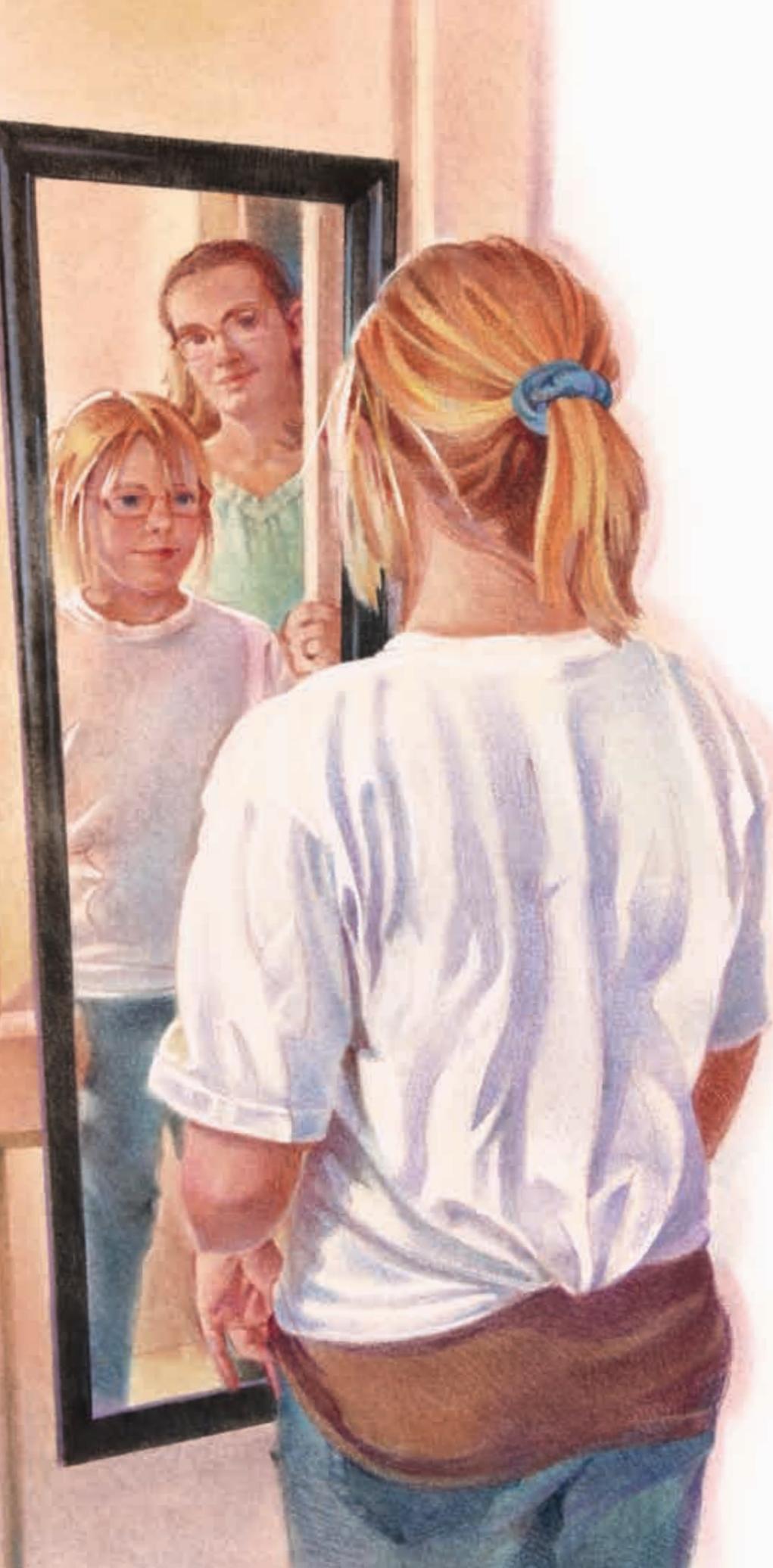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결혼을 한 후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겨우 이틀을 살고 죽었다단다. 할머니는 이 거울 속에서 눈물로 부어 오른 자신의 눈을 보셨을 거야.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는 할아버지와 세 자녀들과 함께 인봉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셨을 거야.

나이가 더 들어서는 상호부조회 모임에 가기 전에 이 거울을 보며 모자를 쓰셨겠지.

할아버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을 때는 수년간 홀로



“여러분의 유산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상에  
대하여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1쪽.

살았지만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용감한 결의를 자신의 눈에서  
보셨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조할머니를 축복하셨나요?” 하고  
물어 보았다.

엄마는 “그럼, 축복하셨지.” 하고  
대답하셨다.

“증조할머니는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그랬어. 할머니가 계획하신  
대로는 아니었지만 말이야. 매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셨단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어 가셨지.”

“제 미래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은색 거울을 상자  
속에 살며시 놓으며 말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래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훌륭한 삶을 준비해 두셨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가 끝까지  
그분을 따른다면, 거울 속에 보이는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을  
거야. 그러면 정말로 꿈이 실현된  
것이겠지.” ■

# 우리들 이야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일곱 살  
난 재지브 비는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무척 사랑합니다.  
재지브의 한 가지 목표는 침례 받기 전에 신앙개조를  
배우는 것입니다.

## 영을 느꼈어요

**하**루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어느 때보다도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제가  
성신을 느꼈다는 것을 압니다.

리사 이, 12세, 독일



코스타리카에 사는 여덟 살  
난 다니엘라 엠은 가정의 밤을  
하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니엘라는  
동생 로돌포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색은 퓨셔색(바늘꽃과인  
관상용 관목 색으로 보라빛  
계열)입니다.



여섯 살인 로돌포 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성구를 즐겨 읽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고, 자신을  
늘 보살피시며 아껴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뭔가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바른 일을 했을 때 저는 성신의 도움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좋은 느낌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물론경에서 엘마는 젊은 시절에 뭔가 잘못하고서 회개를 하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엘마는 좋은 모범입니다.

제러드 와이, 5세,  
서말레이시아



핀 에스, 10세, 독일



발레리 알, 11세, 스위스



후안 지, 6세, 에콰도르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또는 간증을 보내고 싶다면 원고 제목 줄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3~12세),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아울러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분량 조절과 명확한 표현을 위해 원고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대하듯이 여러분의 몸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의 말씀(교리와 성약 89편 참조)을 지키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 읽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나의 복음 표준 참조)

몸과 마음이 깨끗할 때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활동

미로 찾기를 해 보세요. 표지판이 나왔을 때, 그림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성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다른 것을 네 가지 그려보세요. 그림을 오려서 미로에, 좋은 것이 그려진 표지판 그림 위에 놓으세요.

## 비키 에프 마쭈모리

**눈** 을 감고 마음속으로 성전을 그려보세요. 무슨 색깔인가요? 얼마나 큰가요? 창문은 있나요? 뿔족탑은 있나요? 뿔족탑은 몇 개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은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은 벽을 회색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뿔족탑은 여섯 개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카드스톤 성전 벽도 돌로 만들긴 했지만, 뿔족탑은 없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성전은 아름답고 똑같은

목적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성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 즉 성신이 거하는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다이앤 엘 멩검

**야**이로와 아내는 딸의 침대 곁에 앉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은 점점 더 심하게 앓았고, 그들은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 거리로 황급히 뛰쳐나가 나사렛 예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낫게 해 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딸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신 해안가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야이로는 무릎을 꿇어 앉으며 예수님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이로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심부름꾼이 급히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이미 죽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자 통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집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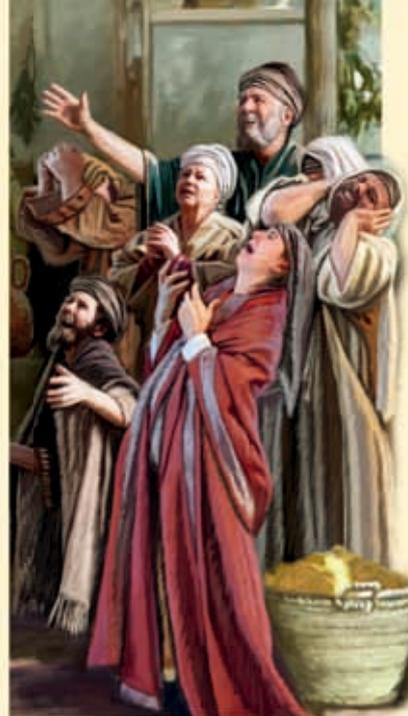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기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 야이로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가버나움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예배하는 곳인 회당의 지도자, 즉 회당장이었다.



애도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이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큰소리로 울며 피리로 슬픈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로 매장되었다.

소녀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때에도 어린이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레아에 계시던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자녀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보이며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보자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느라 바쁘셨고 어린이들은 별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어린이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어린이처럼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마가복음 5:21~24, 35~43; 10:13~16에서

원본 위: 그리스도의 작은 부자 권리의 세부 그림, 허인민(허종표), C. HARRISON CONROY CO.에 허락을 받아 게재. 기타 삽화: 덴 버



# 가르칠 사람들을 찾아서

**선** 교사들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간증을 나누면서 순종심을 보여주고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상자에 있는 대로 각 그림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참고하여 선교사들이 복음에 관해 배우고 싶은 가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 선교사 그림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

출발



끝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반짝이는 생각

우리가 우리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011년 4월 연차 대회

출처: 미션 뉴스



# 동전 한 닢

채드 이 패러스  
실화에 근거

“나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  
앞에 사랑 드리니 주 기뻐하세요.”(“주님께  
십 분의 일을 바치고 싶어요”,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진13쪽)

1. 다니엘은 서랍장 위에 놓인  
동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교회 갈 준비 되었니?

네, 아빠. 곧 나가요.

2. 다니엘은 동전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3.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 다니엘은 감독실 밖에  
있는 십일조 용지와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빠, 십일조 용지 쓰는  
것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4. 십일조는 얼마나 낼 거니?

많지 않아요. 겨우 이만큼.

다니엘, 그만큼이  
네가 받은 돈 중  
십분의 이익이 맞니?

네.

그럼 된 거란다.

5. 다니엘이 봉투를 봉해서 감독님께 드렸습니다. 감독님은 다니엘과 악수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감독님이 봉투 속에 동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도 여전히 악수를 하셨을지 궁금했습니다.



7.

그 동전 하나가 어디에 쓰이지 상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 동전은 목문경 한 쪽을 인쇄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성전 짓는 데 쓰이는 돌 하나를 사는데 쓰일 수도 있단다.

6. 다니엘 네가 자랑스럽구나. 십일조를 내는 훌륭한 선택을 했어.

알아요, 아빠, 하지만 겨우 동전 한 닢뿐인 걸요.

8. 다니엘은 십일조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낸 십일조로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빠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동전 한 닢이지만 십일조를 낼 수 있어 기뻐요.



# 십일조는 어떻게 쓰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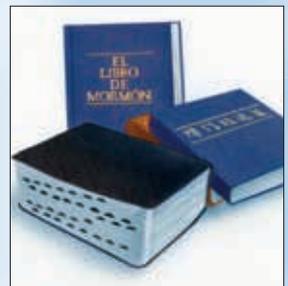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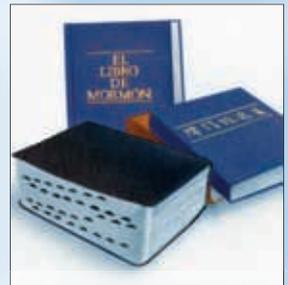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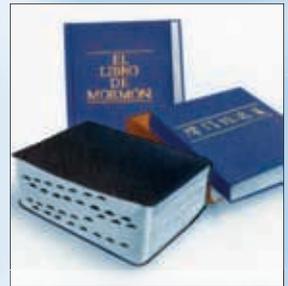
십일조는 선교 사업을 돕고, 성전과 집회소를 짓고, 경전을 출판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십일조가 사용되는 곳을 나타내는 몇 가지 그림을 살펴 보세요. 각각 세로로 줄지어 있는 네 개 그림 중 모양이 다른 그림 하나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세요.

선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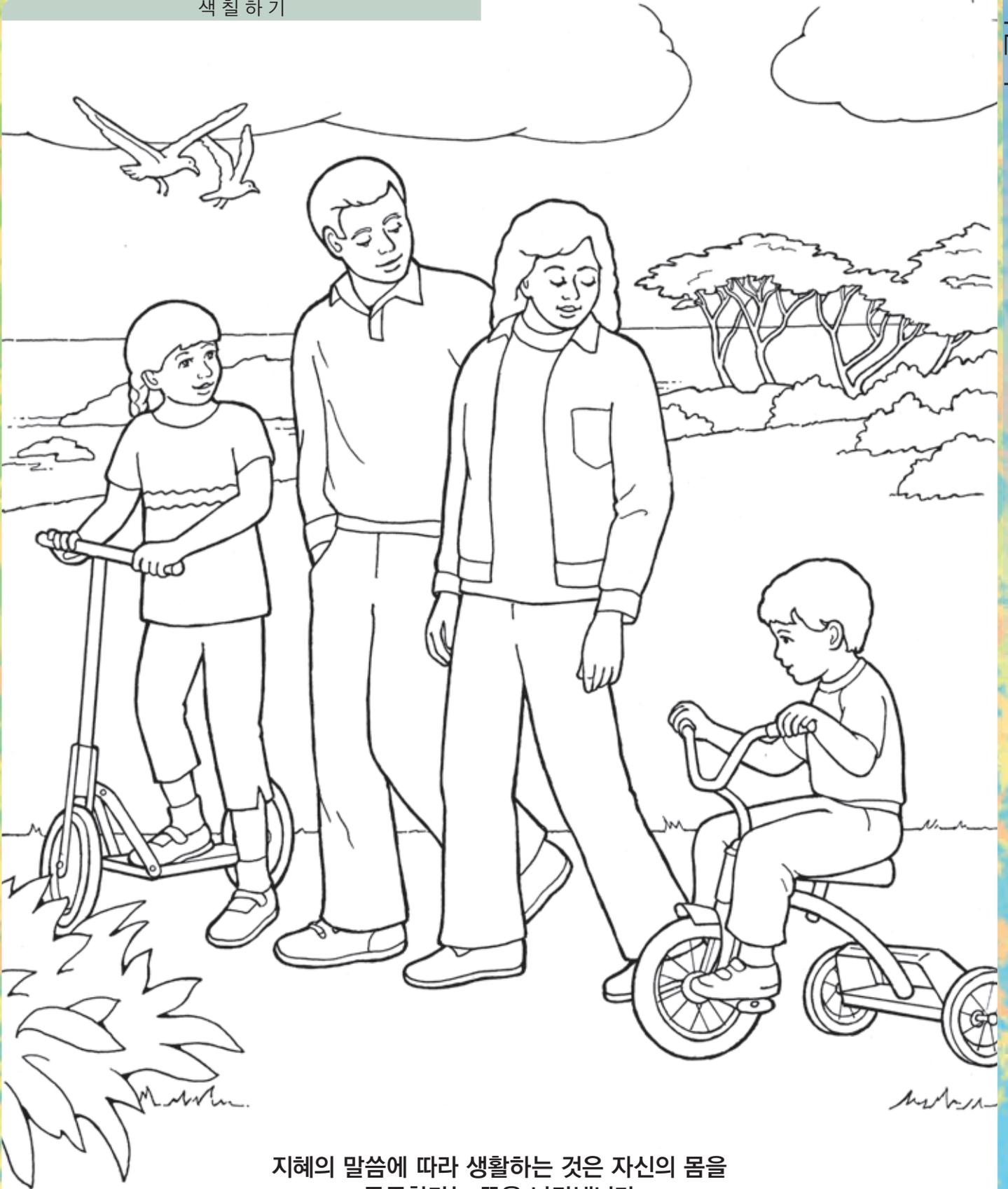
성전

집회소

경전



기독교 출판사: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 교회 소식

## 리아호나와 Ensign 10월호, 몰몬경을 집중 조명하다

**교**회 잡지는 정기적으로 특집호를 발간하여 한 가지 주제를 집중 조명한다. 올해에는 리아호나와 Ensign 10월호에서 몰몬경을 전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집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몰몬경은 어떤 책인가? 왜 우리는 몰몬경을 갖고 있는가? 몰몬경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10월호에는 몰몬경의 역사, 몰몬경과 관련한 회원들의 경험, 경전 공부를 위한 제언, 이 시대를 살아가며 몰몬경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살아 있는 열다섯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 회장들이 나눈 몰몬경에 대한 간증과 통찰이 곳곳에 담겼다.

리아호나 부 편집장인 제니퍼 그린우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간증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우리 종교의 종석인 몰몬경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그런 간증을 실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 과정부 집행 책임자로 봉사하는 칠십인 정원희 폴 비 파이퍼 장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특집호를 활용하도록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스스로를 교화시키고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키우기 위해 잡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저활동 교회 회원과 비회원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잡지를 나눠야 합니다.”

그린우드 자매는 이런 바람을 내비쳤다. “이 특집호가 디딤돌이 되어 사람들이 실제로 몰몬경을 펼쳐보고 전념하여 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읽고, 배우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사람을 개종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은 바로 몰몬경 그 자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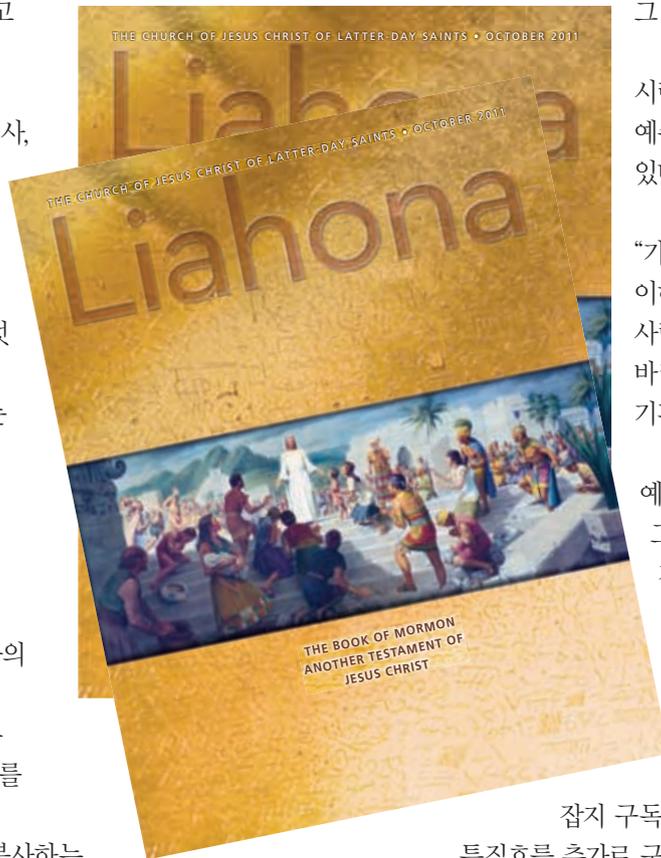
몰몬경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시련을 견디고 간증을 더하여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부에 서 있다.

파이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과 개인이 몰몬경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영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특집호를 기획했습니다.”

10월호는 42개 언어로 발간될 예정이다. 교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를 권장한다.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방문 교육 메시지는 39개 언어로 추가 발행된다. 10월호 전체 기사는 리아호나와 Ensign 웹페이지에서도 여러 언어로 제공된다.

잡지 구독이나 증정을 원하거나 몰몬경 특집호를 추가로 구하고 싶은 회원은 가까운 배부 센터를 방문하거나 [store.lds.org](http://store.lds.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리아호나와 Ensign 10월호에서는 몰몬경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 부름 받은 신임 선교부 회장들

**교**회는 올해 초 127명에 달하는 신임 선교부 회장 명단을 발표했다. 대다수 선교부 회장들은 올해 7월부터 3년을 임기로 부름을 시작했다.

선교부	신임 회장
한국 부산	린 에이 길버트
가나 아크라다니엘	케이 저드
가나 케이프코스트	제프리 엘 솔츠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북	에드워드 디 와츠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남	래리 스테이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중앙	엠 조셉 브러프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루이스 보티스타
나이지리아 라고스	에드워드 케이 비 카카리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필립 케이 사사그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에스 크레이그 오머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마크 아이 우드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마이클 에이 네이더
뉴저지 모리스타운	존 엠 잭슨
뉴질랜드 오클랜드	폴 앤 레키아스
뉴질랜드 웰링턴	마이클 엘 케저리안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서	라울 로드리게스 모델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동	에리베르토 에르난데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리하이 케이 슈와츠
독일어권 스위스 알파인	리처드 엘 마일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스티븐 엠 피터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존 비솔리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이 켄트 러스트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네드 시 힐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짐 엠 월
멕시코 멕시코시티 북	제이 데이나 콜
멕시코 멕시코시티 남동	라이문도 모랄레스바레라
멕시코 베라크루스	카를로스 더블유 트레비노
멕시코 오악사카	엔리케 레이바 히메네스
멕시코 토레온	데이비드 플로레스 빌라세뇨르
멕시코 토크스틀라우티에레스	후안 지 카르데나스 타마요
멕시코 티후아나	아르만도 카레온 리베라
멕시코 푸에블라	로버트 시 리브스
몽골 울란바토르	제이 디 클라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조던 더블유 클레멘츠
미시간 랜싱	스티븐 에이치 헤스
미주리 인디펜던스	도널드 제이 케이스

마이크로네시아 괌	스티븐 에프 메컴
발트해 지역	제프리 지 보스웰
베냉 코토누	로버트 에프 위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비아네이 알 빌라미자르
볼리비아 코차밤바	댄 엘 다이어
브라질 레시페	루벤스 시 라니우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제럴도 리마
브라질 마나우스	에이치 모로나이 클라인
브라질 마세이오	마우리시오 지 곤자가
브라질 브라질리아	엘시오 엘 가르너
브라질 비토리아	제이 아라우호 베제라
브라질 살바도르	제임스 더블유 하트
브라질 상파울루 북	마커스 에이치 마틴스
브라질 상파울루 남	존 에스 태너
브라질 상파울루 인테르라고스	알 파체코 피뇨
브라질 포르탈레자	프란시스코 에이 소우자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제이 호엘 페르난데스
사모아 아피아	조니 엘 레오타
남캐롤라이나 컬럼비아	몬트 홀
스웨덴 스톡홀름	그레고리 제이 뉴웰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에드워드 비 로워
아르헨티나	레이먼드 에스 헤이먼
레시스턴시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우고 엘 줄리아니
아르헨티나 멘도사	세르히오 아 빌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서	더글러스 비 카터
아르헨티나 살타	후안 제이 레브리노
아칸소 리틀록	다니엘 베이 기번스
알래스카 앵커리지	앤 워렌 클라크
알바니아 티라나	앤드류 엠 포드
애틀랜타 투손	로저 이 킬팩
애틀랜타 피닉스	알 스코트 테일러
에콰도르 과야킬 북	리자르도 에이치 아마야
에콰도르 키토	브루스 이 겐트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데이비드 엘 클레지어
엘살바도르 산타아나/벨리즈	아이 폴로스키 코르돈
영국 맨체스터	로버트 아이 프레스턴
오리건 유진	마크 에이 영
오리건 포틀랜드	시 제프리 모비
오하이오 콜럼버스	로버트 티 날슨
온두라스	카를로스 에이 에르난데스
테구시갈파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블라디미르 캠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	외르크 클레빙가트
워싱턴 타코마	더글러스 더블유 위버
서버지니아 찰스턴	브루스 지 피트

일본 고베	리처드 지 징크
일본 삿포로	에릭 시 에반스
일본 센다이	게리 디 라스무센
잠비아 루사카	미켈레 알 파도비치
조지아 애틀랜타 북	마크 에이 윌러트
칠레 산티아고 북	프레드 디 에식
칠레 오소르노	존 이 라플레예
칠레 콘셉시온 남	오스발도 마르티네즈 카레뇨
캐나다 밴쿠버	칼 엠 텔먼
캘리포니아 로우즈빌	존 지 웨스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폴 에프 스마트
캘리포니아 벤투라	페르난도 알 카스트로
캘리포니아 산호세	더블유 링컨 왓킨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에이치 벤슨 루이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폴 앤 클레이튼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호르헤 티 베세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브렛포드 시 보웬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래리 켈릭스
케이프베르데 프라이아	로베르토 에프 올리베이라
켄터키 루이스빌	더블유 리처드 우드버리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지 도미니크 데카예
콜로라도 덴버	북 제리 엠 톰스
콜로라도 콜로라도스프링스	제이 패트릭 앤더슨
콜롬비아 칼리	조너던 엠 프린스
공공민주공화국 킌샤사	브렌트 엘 제임슨
타이티 파피에테	벤자민 티 신조우스
테네시 내슈빌	윌리엄 엘 맥키
테네시 녹스빌	리처드 에이 아이리언
텍사스 델러스	데본 지 듀란트
텍사스 러빅	아놀드 알 어거스틴
텍사스 휴스턴 동	토마스 제이 크로퍼드
텍사스 휴스턴	존 시 핑그리
페루 리마	동 넬슨 아르딜라 바스케즈
페루 치클라요	에두아르도 시 리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클린던 디 토팜
프랑스 파리	프랭크 포즈난스키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도널드 이 앤더슨
피지 수바	케네스 디 클링글러
핀란드 헬싱키	더글러스 엠 로링스
필리핀 다바오	페르디난드 판간
필리핀 마닐라	라일 제이 스투키
필리핀 산파블로	조지 이 피터슨
필리핀 세부	이반 에이 슈유츠
필리핀 엔젤레스	데이비드 시 마르티노
필리핀 올롱가포	로베르토 비 퀘리도
필리핀 케손시티	북 데니스 알 스페리
필리핀 태클로반	호세 브이 안다야 ■

\* 2010년 12월부터 봉사 시작

#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2011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을 받았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은 칠십인 제일 또는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이다.

##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전 지역 보조



스티븐 이 스노우  
1. 유타 북  
2. 유타  
3. 유타 남



윌터 에프 콘잘레스  
4. 미 남동



엘 휘트니 클레이튼  
5. 미 북서  
6. 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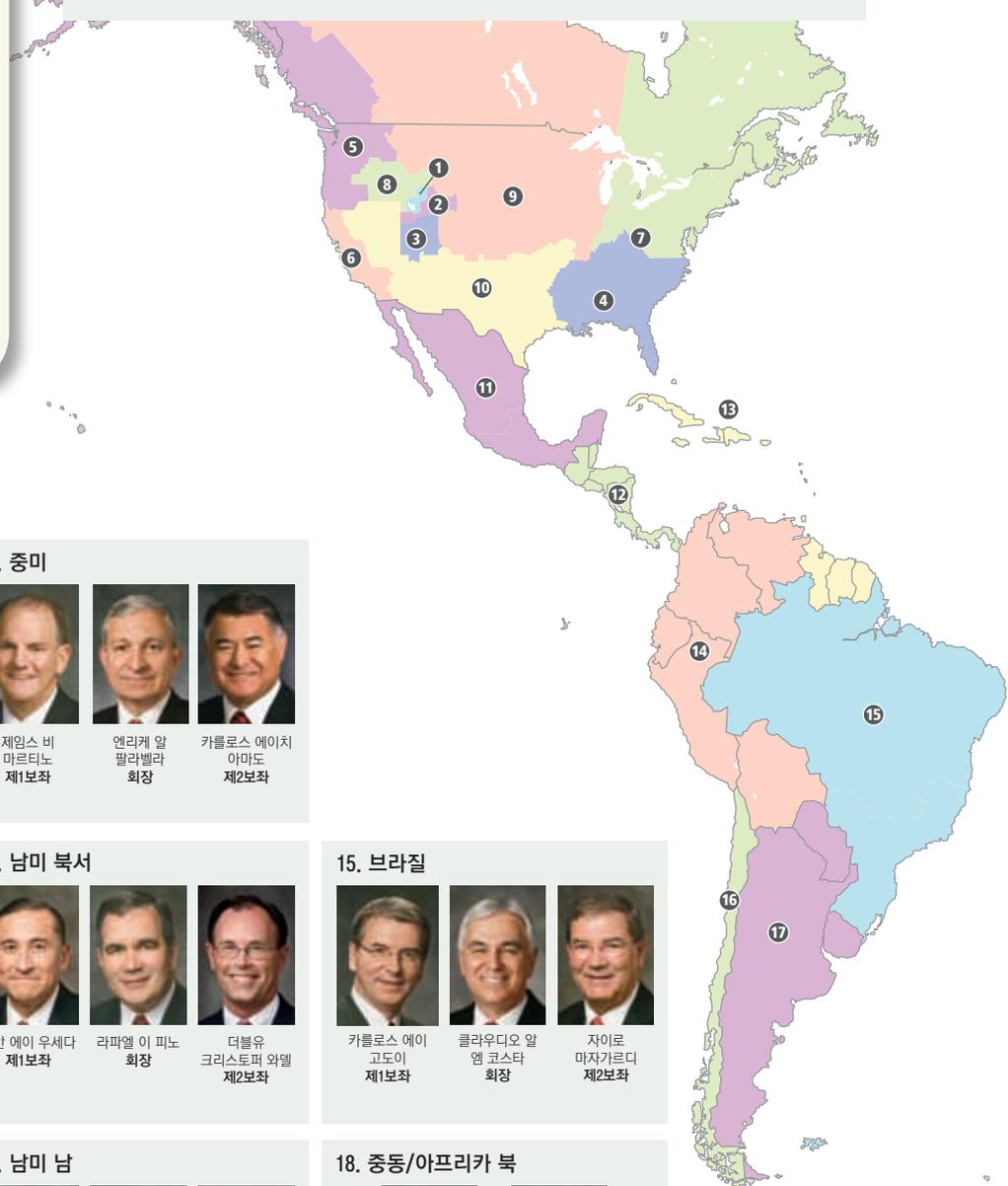
제이 이 쟈슨  
7. 미 북중



도널드 엘 홀스트롬  
8. 미 중앙  
9. 미 중앙



태드 알 콜리스터  
10. 미 남서



### 11. 멕시코



벤자민 데 호요스 제1보좌  
다니엘 엘 존슨 회장  
옥타비아노 데노리요 제2보좌

### 12. 중미



제임스 비 마르티노 제1보좌  
엔리케 알 팔라벨라 회장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제2보좌

### 13. 카리브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제1보좌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회장  
제이 데브 코니쉬 제2보좌

### 14. 남미 북서



후안 에이 우세다 제1보좌  
라파엘 이 피노 회장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엘 제2보좌

### 15. 브라질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자이로 마자가르디 제2보좌

### 16. 칠레



호르헤 에프 제바요스 제1보좌  
로렌스 이 코브리지 회장  
켄트 에프 리처즈 제2보좌

### 17. 남미 남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트스 제1보좌  
머빈 이 아놀드 회장  
브렌들리 디 포스터 제2보좌

### 18. 중동/아프리카 북



브루스 디 포터  
폴 비 피피퍼  
본부 관할

19. 유럽



제럴드 코세  
제1보좌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회장

호세 에이  
테제이라  
제2보좌

20. 유럽 동



래리 알 로렌스  
제1보좌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회장

랜들 케이 베네트  
제2보좌

21. 아시아



켄트 디 왓슨  
제1보좌

앤소니 디 퍼킨스  
회장

게릿 더블유 공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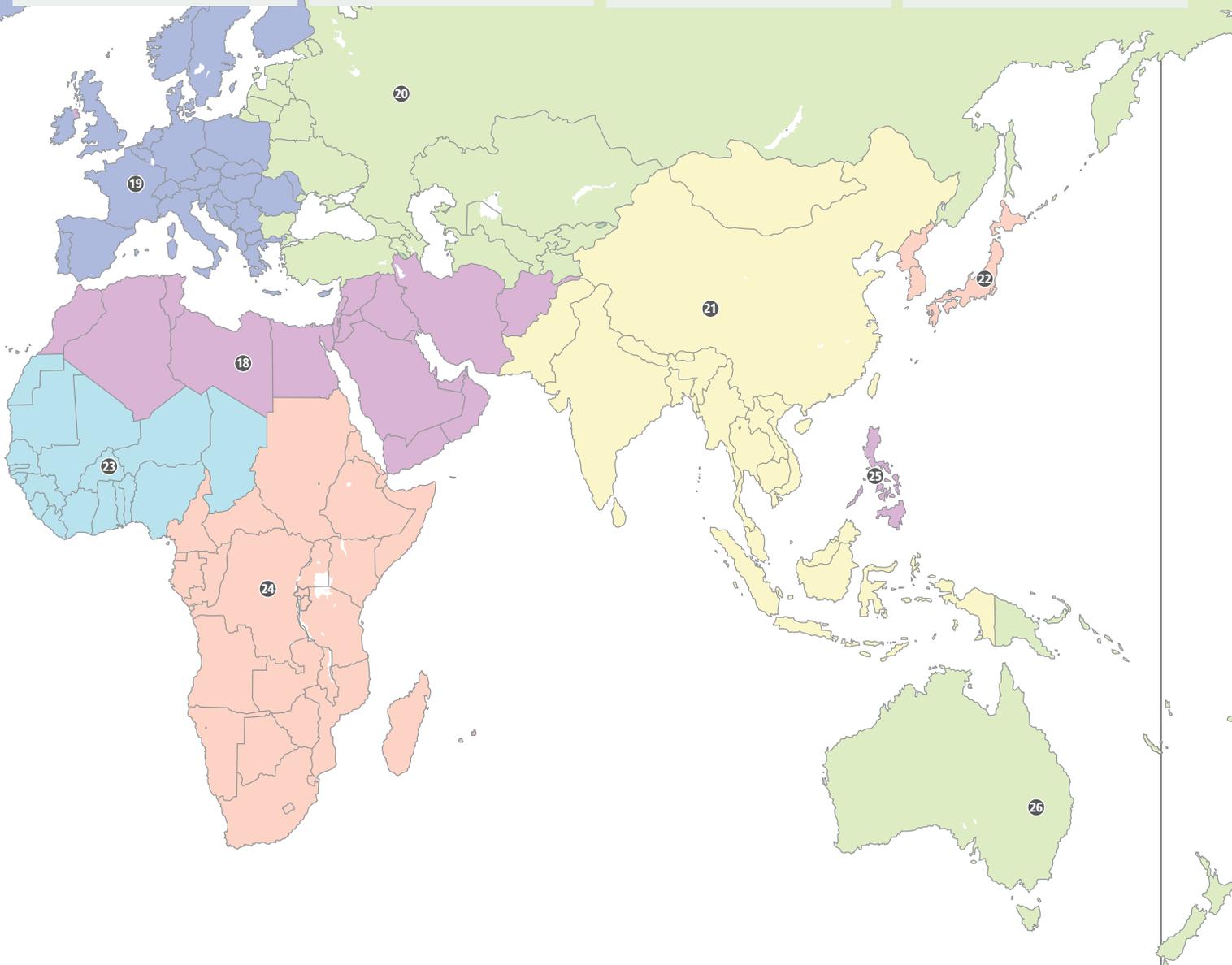
22. 북 아시아



마이클 티 링우드  
제1보좌

게리 이 스티븐슨  
회장

고이지 아오야기  
제2보좌



23. 아프리카 서



조셉 더블유  
시타티  
제1보좌

존 비 덕슨  
회장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제2보좌

24. 아프리카 남동



올리세스  
소아레스  
제1보좌

데일 지 렌랜드  
회장

칼 비 쿡  
제2보좌

25. 필리핀



브랜트 에이치  
날슨  
제1보좌

마이클 존 유 테  
회장

이안 에스 이던  
제2보좌

26. 태평양



케빈 더블유  
피어슨  
제1보좌

제임스 제이  
해롤리  
회장

에프 마이클 왓슨  
제2보좌

## 선교부 경계 조정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교회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교회는 2011년에 다섯 개 선교부를 새로 조직하고 일부 선교부를 이웃 선교부와 통합했다. 전 세계 선교부 수는 340개이다.

교회에서 새로 조직한 선교부는 다음과 같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선교부에서 분리된 베냉 코토누 선교부는 베냉과 토고를 담당한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남동 선교부는 멕시코 멕시코시티 동 선교부, 멕시코 멕시코시티 북서 선교부, 멕시코 멕시코시티 남 선교부 경계를 재조정하여 조직되었다.

페루 치클라요 선교부는 페루 피우라 선교부와 페루 트루히요 선교부에서 분리 조직되었다.

필리핀 마닐라 선교부와 필리핀 케손시티 선교부 경계를 조정하여 필리핀 케손시티 북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잠비아 루사카 선교부는 짐바브웨 하라레 선교부에서 분리되었으며, 담당 지역에는 말라위가 포함된다.

다음 선교부는 통합되었다.

캐나다 토론토 동 선교부 및 캐나다 토론토 서 선교부가 통합되어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로 새로이 탄생했다.

코네티컷 하트퍼드 선교부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선교부로 흡수되었다.

이전에 조지아 메이컨 선교부가 담당하던 일부 지역을 나누기 위해 플로리다 잭슨빌, 플로리다 텔러해시, 조지아 애틀랜타, 남캐롤라이나 콜럼비아 선교부 경계를 조정하였다.

포르투갈 포르투 선교부가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로 흡수되었다.

프랑스 파리 선교부와 프랑스 툴루스 선교부 경계가 재조정되어 스위스 제네바 선교부 지역을 편입했다.(이외에도 프랑스 툴루즈 선교부 본부를 리옹으로 이전하여, 선교부 이름이 프랑스 리옹 선교부로 바뀌었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동 선교부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서/벨리즈 선교부 경계가 조정되었다. 동 선교부는 현재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선교부이며, 서 선교부는 현재 엘살바도르 산타아나/벨리즈 선교부이다.

새로운 선교부 지도는 [lds.org/church/news/2011-mission-boundary-changes](http://lds.org/church/news/2011-mission-boundary-changes)에서 볼 수 있다. ■

### 교회가 일본에서 계속 구호품을 제공한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을 기록한 최악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한 후, 교회는 계속해서 생필품과 구호물자를 일본에 제공하고 있다.

교회 구호 활동을 통해 식품, 식수, 담요, 침구류, 개인 위생용품 꾸러미, 의류, 연료 등 150톤이 넘는 생필품이 배부되었다. 7,000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연 60,000시간 이상을 구호 활동에 참여했다.

### 헝가리에서 온 기록 900만 건이 FamilySearch에 추가되다

3월에 FamilySearch에 추가된 새로운 국제기록 총 1,150만 건 가운데 900만 건이 헝가리에서 제공한 기록이다.

이미 색인정리가 끝난 900만 건은 내년에 출판될 3차분 헝가리 기록 가운데 1차분에 해당한다. 이들 기록 외에도 색인 작업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FamilySearch에서 새로운 헝가리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들 기록 외에도 자원 봉사자들이 색인작업을 위해 헝가리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FamilySearch에서 볼 수 있다. ■

## 애독자 편지

### 리아호나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리아호나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가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어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면 저는 리아호나를 펼쳐서 늘 필요한 답을 연습니다. 리아호나 웹사이트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씀과 공과 준비를 할 때 검색 시간을 줄여줍니다.

마우렐리오 브라스 산타나, 브라질

### 구하는 사람을 위한 안내자

매달 리아호나를 읽으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저를 아끼시는 구주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제가 발전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잡지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안게로레인 코우아디오, 코트디부아르

### 후기 성도의 소리에서 영을 느낍니다

리아호나는 매달마다 더 좋아집니다. 리아호나를 받으면 날아갈 듯 기쁩니다. 그 안에서 영감 어린 메시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후기 성도의 소리가 좋습니다. 구속주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영을 느낍니다.

세일라 우암바, 모잠비크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수많은 세대에게 축복이 된 한 명의 용감한 개척자”,** 16쪽: 이 기사를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사라의 모범이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토론해본다. 여러분이 보이는 좋고 나쁜 본보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용감한 개척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매일 세운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42쪽: 기사를 살펴보면서 교회 회원들이 부름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찾아보고 비교해본다. 인용된 문슨 회장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다른 자원에서 도움 얻기” 제목 아래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48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서

참되고 살아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세 가지 특징을 옥스 장로 말씀에서 찾아본다. 각 특징이 여러분

가족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토론한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특징에 대해 어떻게 간증할 수 있는지 역할극을 해볼 수 있다.

**“거울 속 모습”,** 60쪽: 이 기사를 함께 읽고 난 후에 가족 각자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말해보게 한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도록 돕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론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시편 56편 4절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본다.



### 간증 공과

남편과 갓 결혼했을 때, 저는 우리 두 사람끼리만 가정의 밤을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혹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 가르칠 것이 모두 바닥이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처음으로 가정의 밤을 해보니 놀랍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구주와 결혼에 대해 간증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의 간증이 끝나고 저도 간증을 했습니다. 영원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밤에 대한 제 걱정거리를 몰랐지만 응답을 주었고, 저는 가정의 밤이 주는 영적인 경험을 매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간증을 나누는 것은 우리 집 가정의 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여자 아기가 하나 있고 그 아기에 맞는 공과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꼭 시간을 내어 간증을 나눕니다. 제 자녀들의 간증을 듣고, 또 간증이 중요한 이유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

하이다 이클리누, 미국 켄터키 주

# 바나나 나무에 얽힌 비유

앤튼 티 쿠마라새미  
린다 제이 레이터에게 전해진 이야기

**내**가 사는 스리랑카에서 바나나 나무는 아주 흔하다. 바나나 줄기는 연해서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지만 유용한 과일이 열리는 나무이기에 나무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오래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심한 폭풍이 몰아친 적이 있다. 거센 바람이 잦아든 뒤에 밖에 나가보니 잎이 찢어진 바나나 나무 한 그루가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있었다. 이미 쓰러져 있는 나무 줄기를 베어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집으로 들어가 칼을 찾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나무를 잘라내려는 나를 말리셨다.

할아버지는 “바나나 나무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왜죠? 이제 쓸모 없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무척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짓으로 나를 부르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커다란 막대를 잘라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바나나 나무가 쓰러져 있는 마당으로 돌아갔다. 소용없어 보이긴 했지만 우리는 줄기를 끌어당겨 바나나 나무를 똑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약해진 나무에 지지대를 세워 주었다.

“앤튼, 날마다 이 바나나 나무를 지켜보고, 곧게 서 있는지 확인해 주거라. 날마다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폭풍우에 쓰러진 바나나 나무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랑과 관심, 매일 공급되는 영양분이 있었기에 나무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바나나 나무를 확인하며 줄기가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고, 양동이에 물을 채워 조심스럽게 뿌리 둘레에 부어 주었다. 나무에게 필요한 거름도 꾸준히 주었다.

얼마 뒤, 나무에서는 꽃이 피었고 오래지 않아 바나나가 열렸다. 열매가 익자 할아버지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나나를 나누어 주셨다.

나는 가족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그렇게 맛 좋은 바나나를 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바나나를 맛있게 먹는 가족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다.

이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기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바나나 나무를 돌보면서 배운 교훈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부름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바로 그 바나나 나무처럼 그러한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버림을 받았거나 아름다움을 잃었고,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나는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얼마나 달콤했는지를 떠올린다. 그리하여 구주라면 하셨을 일, 곧 그들을 곧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영양분을 주며, 날마다 보살피는 일을 할 용기를 되찾는다.

우리 가족이 맛 본 바나나는 달콤했다. 물몬경에서는 또 다른 과일이 나온다. 그 열매는 “지극히 감미롭고”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했다.]”(니파이전서 8:11~12 참조) 어둠의 안개를 지나 길을 찾아가려 애쓰는 이들을 돕고, 그 무엇보다도 감미로운 열매, 즉 영생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게 인도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